

碩士學位論文

觀光地 住民의 觀光影響 認識에 關한 研究

- 西歸浦市를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Residents' perceptions of tourism
impacts — A case of Seogwipo city)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觀光經營學科 觀光經營 專攻
宋 良 佑

2002年 月

碩士學位論文

觀光地 住民의 觀光影響 認識에 關한 研究

- 西歸浦市를 中心으로 -

指導教授 許 香 珍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觀光經營學科 觀光經營 專攻

宋 良 佑

2002

觀光地 住民의 觀光影響 認識에 關한 研究

- 西歸浦市를 中心으로 -

指導教授 許 香 珍

宋 良 佑

이 論文을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宋良佑의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委員長_____ 印

委 員_____ 印

委 員_____ 印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2002年 月

<제 목 차 례>

제 I 장 서 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1
제2절 연구의 목적	3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1. 연구의 방법	4
2. 연구의 범위	4
제 II 장 연구의 이론적 고찰	6
제1절 관광지의 개념과 유형	6
1. 관광지의 개념	6
2. 관광지의 유형	7
제2절 관광영향의 개념과 유형	10
1. 관광영향의 개념	10
2. 관광영향의 유형	13
제3절 관광영향인식에 대한 선행연구	21
1. 국외연구	21
2. 국내연구	28
제4절 연구지역의 특성	32
1. 관광동향	32
2. 관광개발 추진실태	37
제 III 장 연구설계	43
제1절 연구의 모형	43
제2절 연구가설의 설정	44
1. 가설의 설정	44
2. 조작적 정의	46

제3절 연구방법	47
1. 연구설계	47
2. 표본의 구성 및 특징	47
3. 설문문의 구성 및 자료분석	48
제 IV 장 연구결과의 분석 및 토론	50
제1절 표본의 일반적 특성	50
제2절 측정척도의 평가	52
1. 관망영향에 대한 인식	52
2. 가설검증	57
3. 추가분석	75
제3절 분석결과의 요약	78
제 V 장 결 론	84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84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85
참고문헌	86
ABSTRACT	94



〈표 차례〉

<표 II-1> 관광자원의 성격에 따른 관광지의 유형	7
<표 II-2> 제주도 관광객 내도 현황	33
<표 II-3> 제주도 관광수입 현황	33
<표 II-4> 서귀포시 관광객 및 관광수입 추세	34
<표 II-5>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7대 선도프로젝트	39
<표 II-6> 서귀포지역 관광개발 현황	39
<표 III-1> 표본의 구성	48
<표 III-2> 설문지 구성	49
<표 IV-1> 표본의 구성과 일반적 특성	51
<표 IV-2> 경제적 영향에 대한 인식	52
<표 IV-3> 지역발전적 영향에 대한 인식	53
<표 IV-4>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	54
<표 IV-5> 문화적 영향에 대한 인식	55
<표 IV-6>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인식	56
<표 IV-7> 경제적 영향에 대한 성별 차이	57
<표 IV-8> 지역발전적 영향에 대한 성별 차이	57
<표 IV-9> 사회적 영향에 대한 성별 차이	58
<표 IV-10> 문화적 영향에 대한 성별 차이	58
<표 IV-11> 환경적 영향에 대한 성별 차이	58
<표 IV-12>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령별 차이	59
<표 IV-13> 지역발전적 영향에 대한 연령별 차이	59
<표 IV-14>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령별 차이	60
<표 IV-15> 문화적 영향에 대한 연령별 차이	60
<표 IV-16> 환경적 영향에 대한 연령별 차이	61
<표 IV-17> 경제적 영향에 대한 거주지별 차이	61
<표 IV-18> 지역발전적 영향에 대한 거주지별 차이	62
<표 IV-19> 사회적 영향에 대한 거주지별 차이	62
<표 IV-20> 문화적 영향에 대한 거주지별 차이	63
<표 IV-21> 환경적 영향에 대한 거주지별 차이	63
<표 IV-22> 경제적 영향에 대한 관광관련 직업 유무별 차이	64

<표 IV-23> 지역발전적 영향에 대한 관광관련 직업 유무별 차이	64
<표 IV-24> 사회적 영향에 대한 관광관련 직업 유무별 차이	65
<표 IV-25> 문화적 영향에 대한 관광관련 직업 유무별 차이	65
<표 IV-26> 환경적 영향에 대한 관광관련 직업 유무별 차이	65
<표 IV-27> 경제적 영향에 대한 관광객과의 접촉별 차이	66
<표 IV-28> 지역발전적 영향에 대한 관광객과의 접촉별 차이	66
<표 IV-29> 사회적 영향에 대한 관광객과의 접촉별 차이	67
<표 IV-30> 문화적 영향에 대한 관광객과의 접촉별 차이	67
<표 IV-31> 환경적 영향에 대한 관광객과의 접촉별 차이	68
<표 IV-32> 연령별 관광개발 인식에 대한 차이검증	68
<표 IV-33> 학력별 관광개발 인식에 대한 차이검증	70
<표 IV-34> 직업별 관광개발 인식에 대한 차이검증	71
<표 IV-35> 거주기간별 관광개발 인식에 대한 차이검증	72
<표 IV-36> 거주지별 관광개발 인식에 대한 차이검증	73
<표 IV-37> 소득별 관광개발 인식에 대한 차이검증	74

<그림 차례>

<그림 II-1> 관광영향의 개념적 틀	11
<그림 II-2> 사회적 교환관계	12
<그림 II-3> 경제적 영향	16
<그림 II-4> 사회·문화적 영향	17
<그림 II-5> 환경적 영향	21
<그림 II-6> 관광자 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25
<그림 II-7> 지역주민의 관광인식	26
<그림 III-1> 연구모형	43
<그림 IV-1> 추가적인 관광개발에 대한 의견	75
<그림 IV-2> 환경보호에 대한 우선순위 재정지출에 대한 의견	76
<그림 IV-3> 관광개발을 위한 지방세 부담에 대한 의견	77



국문 초록

제주도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관광개발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간주되면서 대규모 관광개발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 ‘서귀포시’는 세계정상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서 중문관광단지가 개발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고, 특히 세계평화의 제전인 2002월드컵축구대회 개최지로서 따뜻한 기후, 수려한 경관, 충분한 숙박시설, 완벽한 경기장 시설 등 동계 전지훈련의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 건축가 상을 받은 ‘가장 아름다운 월드컵 경기장’을 찾은 방문객이 만족도에 따른 구전효과로 인해 국내·외 관광인원이 급증(1일 4천명~7천명)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향후 동계전지 훈련 등 관광자원으로 최대한 활용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광목적지라는 특수한 환경적 특성을 가진 지역사회에 있어서 관광지 주민이 관광영향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해 봄으로써, 진행되어질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진흥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관광지 주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그 결과 관광지 주민이 느끼는 관광에 대한 인식은 과거의 연구들에서 주를 이루었던 부정적 시각이 이번 조사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조사의 연구대상지와 연구기간, 변수의 설정 등에 따른 차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관광개발이 수십년부터 이루어져 오고, 또한 관광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과거 개발단계에서 보여왔던 부정적 의견이 이제는 자신들의 생계수단과 맞물려 있고, 또한 관광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다는 데서 온 반응이라고

도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관광지 주민의 관광개발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역시 위의 관광영향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결과들을 반영하여 주듯이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발전을 위해 추가적인 관광개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82.4%를 차지하였다는 것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양적인 관광의 발전보다는 환경보호를 전제로 하는 관광개발을 주문함으로서 소위 말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환경친화적인 관광개발’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과거 관광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느끼던 관광지 주민의 관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고, 이는 추가적인 관광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루어 관광지 주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과거의 양적 팽창 위주의 관광개발이 아닌, 환경을 보호하는 지속가능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관광개발을 할 때만이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고, 추가적인 관광개발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관광개발을 위한 지방세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나, 관광개발을 시행할 시에는 지방정부에서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개발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 간의 대립을 막을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라고 하겠다.

제 I 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현대사회에서 관광행위가 갖는 사회·문화적 의미는 서로 다른 문화간의 단순한 접촉을 뛰어넘는 문화접촉 현상으로, 특히 인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고 있다¹⁾.

오늘날 관광산업은 정보산업, 환경관련 산업 등과 더불어 21세기 세계 3대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관광산업이 미치는 관광승수 효과로 인해 세계 각 국에서도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현실이다²⁾.

제주도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관광개발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간주되면서 대규모 관광개발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 연구지역인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 ‘서귀포시’는 세계정상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서 중문관광단지가 개발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고, 특히 세계평화의 제전인 2002월드컵축구대회 개최지로서 따뜻한 기후, 수려한 경관, 충분한 숙박시설, 완벽한 경기장 시설 등 동계 전지훈련의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한국 건축가 상을 받은 ‘가장 아름다운 월드컵 경기장’을 찾은 방문객이 만족도에 따른 구전효과로 인해 국내·외 관광인원이 급증(1일 4천명~7천명)하고 있는 추세³⁾에 있어 향후 동계전지 훈련 등 관광자원으로 최대한 활용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 1) 김기동, “관광영향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변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1998, p. 7.
 - 2) 박용재, “기초자치단체의 관광지관리가 방문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1999, p. 1.
 - 3) 제주타임스, 제주월드컵 방문 관련 보도자료 게재 내용중 발췌, 2002. 4. 12(금), 7면.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대량 관광시대를 맞이하면서 관광이 특정 지역사회 또는 국가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그리고 생태학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단위 국가별로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관광개발의 끼치는 영향의 파악, 즉 영향연구(Impact Studies)가 활기를 띠고 있는 것도 이러한 관심의 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관광현상은 복합적 현상으로 그 영향 또한 매우 다양하다. 이제까지의 관광영향에 대한 인식은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 관광의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소득효과, 고용효과 등 긍정적인 측면으로 주로 강조해 왔다⁴⁾.

반면에 관광의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영향은 문화인류학자들에 의해 주로 연구되어왔으며, 이들은 주객(Host and Guest)이라는 상호작용 관계에서 관광객이 현지 주민에 미치는 영향, 이윤배분 전이효과, 범죄 및 사치와 낭비 풍조 조장, 지역사회 유대감의 붕괴 등 특히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해 왔다⁵⁾.

관광영향에 대한 인식은 관광으로 인한 관광자의 만족과 관광지 주민의 경제적·사회적 편익을 얻는 과정에서 긍정적,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하는 것이다. 기존 관광의 제 영향에 대한 연구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 중 대개 어느 한 측면만을 고찰하는 경향에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관광영향의 긍정적 또는 편익적 측면 및 부정적·비용적 측면 모두를 고려하여, 사회변화의 과정에 따른 관광지 주민이 느끼는 관광영향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이 문제 제기를 한다.

첫째, 관광지가 주변에 산재해 있는 관광지 거주 주민이 느끼는 관광영향은 과거의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것에 비해 현재에는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되어진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며

둘째, 관광지 주민의 인식이 향후 관광개발에 있어 미칠 영향 정도에 대해서 연구를 시행한 것이 드물기 때문이다.

4) 김기동, 전개논문, p. 8.

5) 김사현, 「신관광 경제학」, (서울 일신사, 1997), p. 12.

제2절 연구의 목적

사회구성원들의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 그에 따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게 마련이다. 삶의 질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관광행위를 통해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자아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은 규격화된 일상에 찌든 현대인들에게 필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듯 현대인의 생활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관광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공급차원에서의 관광개발은 경제성장이라는 양적 의미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질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전사회적인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관광개발을 관광지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 자신의 생활근거지에서 관광으로 인해 야기되는 제반 사회·문화적 영향을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광개발을 모색하는 계획가(Developer)의 입장에서는 관광개발의 대상이 되는 관광지에서 지역 주민이 관광개발에 따른 관광영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영향의 인식하에 관광개발을 위해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관광개발의 실질적 주체가 되어야 할 관광지주민이 관광영향에 대한 인식상태는 관광개발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의 비중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⁶⁾.

본 연구는 관광목적지라는 특수한 환경적 특성을 가진 지역사회에 있어서 관광지 주민이 관광영향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분석해 봄으로써, 본 연구 결과가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진흥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관광지주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표가 있다.

6) 장성수, “관광지주민이 지각하는 관광영향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1995, p. 26.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적 연구(Literature review)와 실증적 연구(Empirical method) 방법을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는 조사대상지역에 대한 정보수집과 국·내외 관련 문헌 및 연구논문, 서적, 보고서, 통계자료 등을 통한 관광지 및 관광영향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관광영향에 대한 연구 및 그 영향에 대한 관광지 주민 인식에 관한 연구 동향 등을 검토하였으며, 관광영향연구는 매치슨과 월(Mathieson and Wall)의 영향연구를 중심으로 경제적 영향, 사회·문화적 영향, 환경적 영향의 세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증연구는 천혜의 관광지인 서귀포지역을 중심으로 관광지 주민의 특성별 영향 인식을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한 통계검증으로 지역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관광영향의 수준과 사회변화에 따른 인식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조사방법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기법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측정도구로 삼았으며, 관광영향에 대한 반응 등 설문조사를 실시해 봄으로써 실증적 분석방법을 병행하였다. 또한, 연구지역 관광지 주민을 상대로 조사된 설문자료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의 범위

공간적 범위는 관광개발이 완료 또는 진행중이며 천혜의 자연경관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관광자원 의존형 관광지인 서귀포시를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이는 한라산 국립공원이 인접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관광지인 중문관광단지 등 현재까지의 관광개발로 인하여 관광지 주민은 관광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느끼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내용적 범위는 관광 혹은 관광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영향중 기존의 연구로 밝혀진 세 가지 영향 요인, 즉 경제적 영향, 사

회·문화적 영향, 환경적 영향의 세 가지 측면으로 대별하여 연구의 이론적 틀을 완성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2002년 9~10월로서 지금까지의 관광개발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관광영향 인식에 대하여 현재의 느낌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제1장에서 서론을 기술하였고, 제2장에서 연구의 이론적 고찰, 제3장에서 연구설계를, 제4장에서 연구결과의 분석 및 토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결론을 다루었다.



제 II 장 연구의 이론적 고찰

제1절 관광지의 개념과 유형

1. 관광지의 개념

관광지는 관광객의 관광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공간이다. 따라서 관광지는 관광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자원을 보유하여야 하고 관광객의 관광활동을 가능케 할 각종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기반시설, 즉 교통·통신·상하수도·전력, 정보서비스시설 등의 제반시설이 갖추어진 지역이다. 관광공간은 장소(Place)·지구 또는 영역(Area)·지역(Region)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관광시설은 관광입지의 기본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관광자원의 성격에 따라서 관광지의 특성을 규명하게 된다⁷⁾.

관광지가 자연발생적으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관광자원의 가치가 있는 지역인 경우, 예를 들면 온천지, 문화 유적지, 자연경승지로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므로⁸⁾ 관광지의 특성을 한 측면에서 고찰하기는 어렵다.

관광지를 중심으로 관광취락이 발달되고, 새로운 문화유입에 따른 문화충돌·문화갈등이 일어나기도 하며, 관광지의 개발·보전·이용·관리의 한계설정 등에는 관광정책이 개입하게 된다. 관광지를 형성하는 요소로서 중요한 관광자원은 관광경관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이는 자연경관, 인문경관, 관광경관으로 구분된다. 관광지 형성의 자연경관은 자연관광자원에 기초하고, 인문경관은 문화·취락·교통·시설·배후지·거주민·이미지 등이 해당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관광을 목적으로 그곳을 방문함으로써 일어나

7) 박용재, 전개논문, pp. 8~9.

8) Brain G. Boniface and Christopher P. Cooper, *The Geography of Travel and Tourism*, Oxford : Heinemann Professional Publishing, Ltd., 1988, p. 26.

는 경제 활동에 의해 많은 사람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지역을 관광 지라고 할 수 있다9).

관광지는 지역자체가 관광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관광자원 과 동일하나, 모든 관광자원이 일정지역이라는 공간적 개념을 갖지는 않 는다는 점에서 관광자원과 구분되며, 관광지도 관광자원의 범주에 든다.

2. 관광지의 유형

1) 관광자원의 성격에 따른 분류

관광자원의 성격에 따라 관광지를 분류하면 자연관광자원 의존형, 인 문관광자원 의존형, 관광시설자원 의존형으로 나눌 수 있다.

<표 II-1> 관광자원의 성격에 따른 관광지의 유형¹⁰⁾

성 격 별	유 형 별
· 자연관광자원 의존형	· 산악 관광지 · 내륙수변 관광지 · 해안 관광지 · 기타 관광지 - 동굴, 온천 등
· 인문관광자원 의존형	· 문화유적 관광지 · 종교문화 관광지 · 생활현장 관광지 - 도시경관, 농어촌경관, 산업시설 등
· 관광시설자원 의존형	· 관람시설 관광지 · 이용시설 관광지

2) 관광자원의 유형에 따른 분류

관광자원의 유형에 따라 관광지를 분류하면 산악관광지, 수변관광지,

9) 일본관광협회, 관광계획의 수법, 1986, p. 16.

10) 박석희, 「신관광자원론」, 1994, p. 57.

도시관광지, 도서관광지로 구분할 수 있다.

산악관광지는 산악신앙에서 비롯된 산에 대한 행동을 관광화 한 것으로 개발에 한계가 있으나 원시성을 매력으로 하고 있는 등산기지형, 일반 스키장보다 높은 곳에서도 로프웨이를 설치하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스키등산지형, 온천, 폭포, 동식물 등 자연관광자원이 있고, 자동차도로 등의 정비가 완벽하여 연중 계속 관광활동이 이루어지는 종합산악관광지형으로 산악형 국립공원이 여기에 속한다. 별장형으로 비교적 교통이 좋은 곳으로서, 여름은 피서, 겨울은 스키 등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수변관광지는 해안관광지, 강변관광지, 호반관광지 등이 있다.

도시관광지는 주로 도시민에 의해 이용되며, 동시에 지역 밖에서 오는 관광객에 의해서도 공용되는데 관광도시이기 위해서는 지역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을 상대로 한 관광산업이 지역산업 구성상의 비중이 커야 한다.

도서관광지는 우리나라의 제주도, 홍도, 울릉도 등과 같이 섬이기 때문에 특수한 자연경관이 형성되어 있고, 그 경관 자체가 독특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관광지로서 육지의 교량에 의해 연결되더라도 그 이미지는 크게 훼손되지 않으며 쾌속선·카페리 등에 의해 접근된다¹¹⁾.

3) 관광객의 관광목적에 따른 분류

관광목적은 크게 휴양·휴식, 치료·보양, 위락, 문화유적 감상, 자연경승지 탐방, 교육·문화, 스포츠, 성지순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류에 의한 관광지는 휴양·휴식형 관광지로서 독일의 바덴바덴과 같은 온천 휴양지, 스위스 레만호수지역, 인도네시아 발리섬, 한국의 제주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치료·보양형 관광지는 랑독·루시옹, 중국의 한의학에 기초한 관광지, 쿠바의 치료관광 등이 해당된다. 위락형 관광지로서는 암스테르담, 라스베

11) Douglas Pearce, *Tourism Today*, Longman Scientific & Technical, 1987, pp. 21-23.

가스를 들 수 있다. 문화유적감상형 관광지는 중국의 자금성, 베르사이유 궁전, 나폴레옹 유적관, 영국의 런던탑 등이다. 자연경승지 탐방형 관광지는 북한의 금강산, 알프스, 스위스의 레만호수, 나폴리, 시드니, 그랜드캐년, 나이아가라 폭포 등이다. 교육·교화형 관광지는 일본의 청소년 여행촌, 자연의 집, 소년의 집, 한국의 강화도, 한산도, 로마박물관, 대형박물관 등이 해당된다. 스포츠형 관광지는 올림픽스타디움, 일본의 이오지마,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삿포르, 한국의 무주리조트 등이 해당된다.

4) 체제기간에 따른 분류

관광객이 관광지에서 체제할 수 있는 시간·비용·시설 등의 조건과, 관광지와 계량거리를 중심으로 관광지는 크게 체제형 관광지, 비체제형 관광지, 경유형 관광지로 구분된다. 여기서 체제형이란 숙박형 관광지를 의미한다. 체제형 관광지는 관광지 주변의 경쟁적 관광지보다 관광 자원의 유인력 및 매력도, 체제에 필요한 여건이 충족될 경우와 출발지로부터 계량거리·시간 거리가 당일로 귀환이 어려운 경우에 체제형이 된다.

5) 입지에 따른 분류

입지에 따라 관광지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주로 이용자가 존재하는 지역의 시장과의 위치관계에 따라서 관광지를 분류하는 것이다. 당연히 시장의 크기를 구분함에 있어서, 거리를 일상권, 일일권, 숙박권으로 나누고, 시장의 크기를 500만 명, 100만 명, 30만 명 등과 같이 범주화시켜서 이 두 가지를 조합하여 분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¹²⁾.

12) 일본관광협회, 관광·지구 조사연구Ⅱ, 1984, pp. 14~15.

제2절 관광영향의 개념과 유형

1. 관광영향의 개념

관광의 영향을 구분하는 방식은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다르다. 관광의 영향을 세 개의 범주 즉, 경제적 영향, 사회적 영향, 물리적 영향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이를 경제적 영향, 환경적 영향, 사회·문화적 영향, 정치적 영향으로 나누기도 한다. 또 사회적 영향과 경제적 영향을 결합하여 사회·경제적 영향이라 하기도 하여, 영향의 경계가 모호하거나 불분명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관광영향은 관광의 결과적 요소(Consequential Element)이며, 경제적(Economic Impacts), 물리적(Physical Impacts), 사회·문화적(Social Impacts)영향으로 구분한다¹³⁾. 따라서 관광영향은 관광자가 관광목적지(Destination)를 방문, 관광활동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것으로 관광자, 관광목적지, 지역주민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¹⁴⁾, 관광지의 수용력에 따라 영향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 것이다¹⁵⁾. <그림 II-1>은 관광영향을 하나의 척도로서 나타낸 것으로 관광자가 관광목적지에 도착하여 지역 주민과 상호 접촉 결과, 목적지에서는 관광영향이 발생하며 그 영향은 경제적 영향, 사회적 영향, 문화적 영향, 환경적 영향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각 편익적 측면과 비용적 측면의 영향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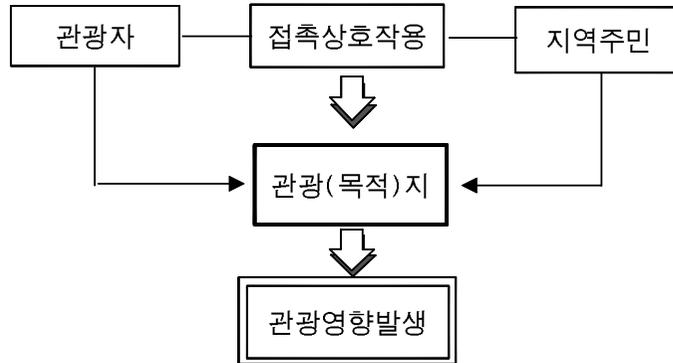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측면에서 관광개발의 수준에 따른 인식의 변화는 매우 다양하다. 관광개발의 수준이 낮은 상태이거나 관광객의 수가 적을 경우 변화에 대한 인식이 느리지만, 관광개발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주민과 관광객과의 접촉이 증가할수록 인식에 대한 변화는 빠르고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13) 김기동, 전개논문, p. 6.

14) 한국관광공사, 국민의 여가 생활과 관광산업, 1985. p. 38.

15) 이숙, “관광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연구 : 이태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1991, p. 11.

<그림 II-1> 관광영향의 개념적 틀



자료: Mathieson and Wall(1982), p. 15를 근거로 논자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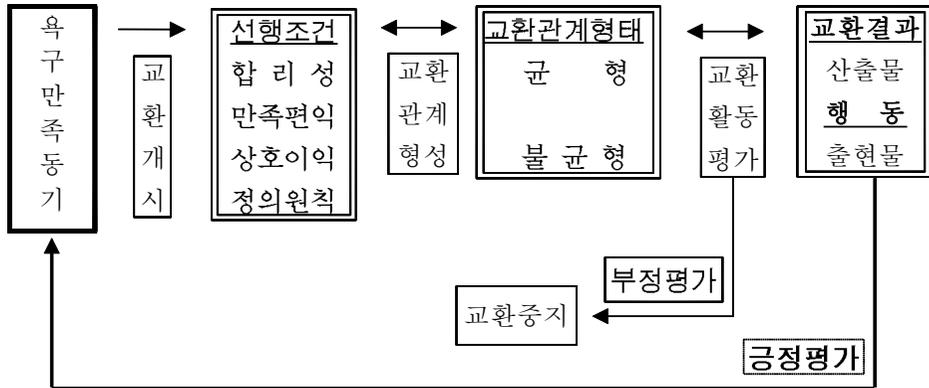
사회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은 이와 같이 관광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데 적절한 체제로 이용되어져 왔다¹⁶⁾. 이 이론은 사회적 관계에 관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관점의 사회심리학 이론으로서, 사회 관계 대상들이 주고받는 보수와 부담에 관심을 갖는다. 보수는 관계로부터 얻는 것으로 특유성의 차원과 구체성의 차원으로 구분된다. <그림 II-2>은 이를 나타낸 것이다.

특유성의 차원은 어떤 보수의 가치가 그것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얼마만큼 의존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구체성의 차원은 보고, 냄새 맡고, 만질 수 있는 것과 같은 유형의 보수들과 충고나 사회적 안정과 같은 비구체적 또는 상징적 보수들 사이의 구분을 내포한다. 부담은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는 부정적 결과들이다. 이처럼 사회적 교환이론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 관계의 보수들과 부담들을 계산해 두고 있다고 가정한다.

관광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설명하는 적절한 체계로서의 사회적 교환이론의 장점은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 개별적 또는 집합적 수준에서 관련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광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는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적 틀을 제공하여 줄 수 있다는 것이다.

16) 김기동, 전개논문, p. 7.

<그림 II-2> 사회적 교환관계



자료 : AP(1992), p. 670을 근거로 논자 재작성.

압(Ap)은 이 사회교환이론을 적용하여 지역주민과 관광 사이의 자원의 교환이 높고 균형을 이루거나, 또는 불균형 관계라 하더라도 주민 행위자에게 높을 때 관광영향은 지역주민에 의해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자원의 교환이 균형에서 어느 한쪽이 낮거나, 또는 교환관계가 불균형일 때 관광영향은 부정적으로 보여진다고 보고하고 있다¹⁷⁾.

관광개발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부정적 인식은 사회교환과정에서의 상호 불균형이 기본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고, 사회적 비대칭, 관광자와 지역주민의 불균형적 관계를 부정적 인식의 근본이라고 보기도 한다¹⁸⁾.

17) 김기동, 전개논문, p. 8.

18) 고동완, “지역주민의 지각된 관광영향과 지역사회에 대한 태도연구”, 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1998. p. 36.

2. 관광영향의 유형

1) 경제적 영향

대부분이 문헌들이 긍정적 영향, 특히 경제적 효과를 부각하고 이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 때 관광의 경제적 영향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는 종단적(Longitudinal) 결과와 그 승수효과(Multi Effect)에 관심을 갖는다¹⁹⁾.

우리나라의 경우 관광영향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개발에 대한 관광의 공헌을 설명하는 데는 관광의 경제적 일시적 효과만으로 불충분하여 발생론적 접근(Genetic Approach)을 주장한 학자도 있다²⁰⁾.

관광영향의 긍정적 측면으로는 외화획득에 의한 국제수지 개선, 소득 발생, 고용창출, 경제구조 개선, 기업활동 촉진, 정부수입 증가 등이고,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관광에 대한 과세의존, 인플레이션 유발, 지가상승, 수입성향 증대, 생산의 계절성과 투자의 낮은 회수율, 기타비용의 발생 등이 있다.

(1) 경제적 영향의 긍정적 측면

첫째, ‘외화획득에 의한 국제수지 개선’으로 에어리(Airey)는 국제수지에 대한 관광영향을 1차적 효과, 2차적 효과, 3차적 효과로 나누었다.

1차적 효과는 한 국가 내에서의 외국인 관광객 지출과 해외에서의 내국인 관광객 지출에 따른 효과로서 통화의 직접적인 유입과 유출을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2차적 효과는 관광객 지출이 경제를 통해 국제수지에 미치는 효과이며, 3차적 효과는 관광객의 직접 지출에 의하지 않은 통화의 흐름에 따르는 효과로서, 관광활동에 의해 발생한 투자기회 등이다.

둘째, ‘소득 및 고용 창출’로서, 소득발생에 따른 승수효과는 관광객의 지출에 있어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고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지출과 소

19) 이미혜, “관광의 지역경제적 편익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1993. p. 56.

20) Pearce, II, John A. ‘Host Community Acceptance of Foreign Tourist : Strategic Consideration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80, p. 72.

득을 발생하는데 한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한, 일련의 소비활동은 새로운 소득을 발생시킨다²¹⁾.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소득의 재소비를 승수효과라고 하는데, 관광객에 의해 소비된 수입상품과 서비스의 양, 수입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소비성향 등이 승수효과와 관계가 있다.

셋째, ‘지역경제의 개발과 촉진’으로서, 관광은 지역개발을 수단으로 간주되기도 하는데, 개발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지역에 고용과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 관광산업을 선택하면, 개발이 잘 된 지역보다 훨씬 큰 주민 복지효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²²⁾.

넷째, 관광은 ‘정부의 조세수입을 증가’시키는데, 관광사업으로부터의 정부는 관광업체종사자, 관광사업체, 수출업체, 입장료, 봉사료 등에 부과되는 직접세, 관세 등에 부과되는 간접세, 정부소유 관광관련업체로부터의 수입, 이자수입, 차관의 회수 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²³⁾.

(2) 경제적 영향의 부정적 측면

관광투자의 기회비용은 제한된 자원을 관광산업에 투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훨씬 더 생산적일지도 모르는 다른 산업에 투자하여 얻는 경제적 효용이 절감될 수 있는 것으로 관광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기회비용과 같은 기본적인 비용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²⁴⁾.

첫째, ‘관광에 대한 과잉의존’은 가격변화와 같은 내부변화, 경제적 변화, 에너지 이용과 같은 외부변화에 민감하므로 관광에 대한 지나친 경제적 의존은 위험하다고 밀(Mill)은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제관광 사업은 다국적 기업 등 외부로부터의 투자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단계에서는 관광 대상국은 외부투자의 기술 및 비용, 대가, 지불요구에 응해야

21) 이숙, 전개논문, p. 16.

22) Pearce, Douglas G, 'Tourism and Regional Development : A. Genetic Approach',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82, p. 58.

23) 김기동, 전개논문, p. 11.

24) Mathieson, Alister and Wall, Geoffrey, *Tourism : Economic, Physical and Social Impacts*. New York ; Longman. 1982, p. 69.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종속관계를 발생시킨다²⁵⁾.

관광수요의 감소는 서비스의 낮은 이용, 직업의 과잉상태, 소득의 감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수요의 변화에 의한 경제적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 내부와 기초경제(Basic Economy)에 있어서 다양성을 증진시켜야 한다²⁶⁾.

둘째, ‘물가안정과 지가상승’으로서, 관광은 소비에 유용한 재화와 서비스의 범위·가격·질의 변화를 통해 주민복지에 영향을 미친다. 관광산업의 성장은 토지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를 발생시키며, 잠재적 구매자로부터의 경쟁은 토지가격을 상승시킨다²⁷⁾.

셋째, ‘수입성향의 증대’로서, 관광지를 찾아온 내외국인 관광객을 접촉한 지역주민들은 그들의 소비성향과 모방 충동으로 인해 수입품을 선호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인하여 수입품 수요를 유발한다.

넷째, ‘생산의 계절성과 투자의 낮은 회수율’로서, 관광산업은 서비스산업이며 계절적 요인에 따라 수요에 민감하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관광지는 계절적이며 많은 관광시설이 비수기 동안 폐업한다. 그러나 시설 유지비는 많이 지출되며 고정적인데 비해, 높은 고정비와 계절적 수요의 결과, 투자에 대한 회수는 다른 산업에 비해 뒤떨어진다.

<그림 II-3>에서는 관광지가 가지는 경제적 영향에 대하여 긍정적 편익과 부정적 비용의 경제적 영향이 관광의 이해관련자와 비이해관련자에 게도 그 영향이 미친다고 본다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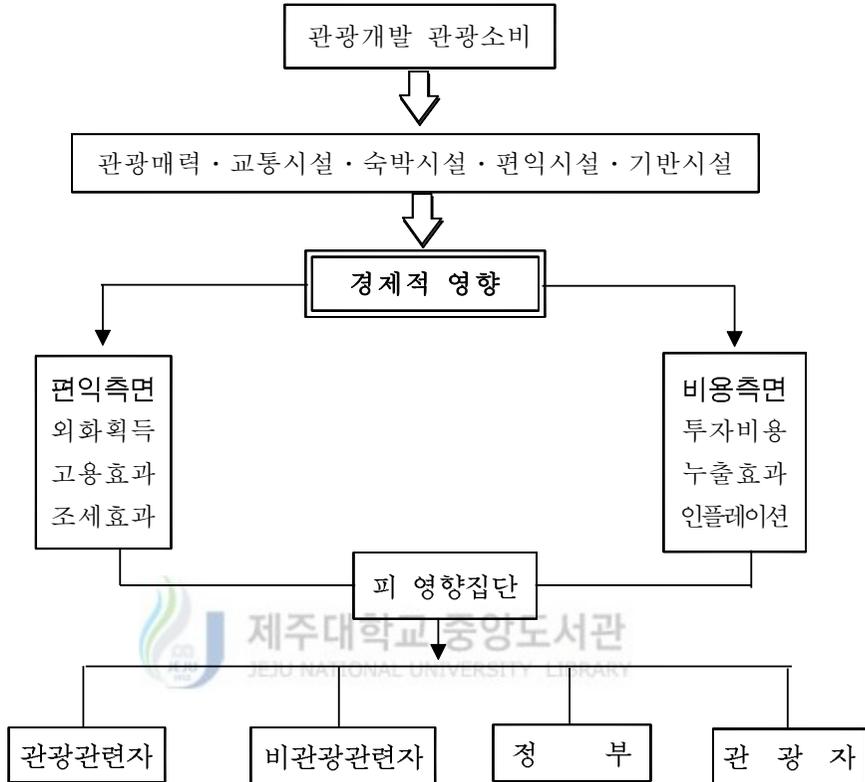
25) 김사현, 전개서, p. 76.

26) 반진호, “관광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1991, p. 24

27) 한국관광공사, 관광지주민의 관광의식 조사, 1999, pp. 111~112.

28) Pearce, Douglas G, *Tourist Development*. New York ; Longman. 1981, p. 88.

<그림 II-3> 경제적 영향



자료 : Pearce(1981), p.54를 근거로 논자 재작성.

2) 사회·문화적 영향

관광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주로 경제적 영향에만 치중되어 왔고,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큰 주목을 끌어들이지 못했으며 역사가 얼마되지 않았다. 산발적으로 연구되어온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은 세계은행과 유네스코가 최초였다²⁹⁾.

관광의 사회·문화적 영향은 수용지역사회의 주민이 관광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주객(Host-Guest)의 접촉과 상호작용으로 양자의 가치관, 태도 등에

29) Kadt, 'Estimating Economic Impacts of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89, p. 15.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흔히 이러한 영향은 주객간의 사회 경제적 비대칭성³⁰⁾으로 말미암아 부정적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피어스(Pearce)는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관광의 사회·문화적 영향이 지역주민에 대한 영향, 직업형태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전통적 생활방식에 대한 영향, 소비패턴의 변화, 관광객에 대한 편익과 같은 부분에서 일어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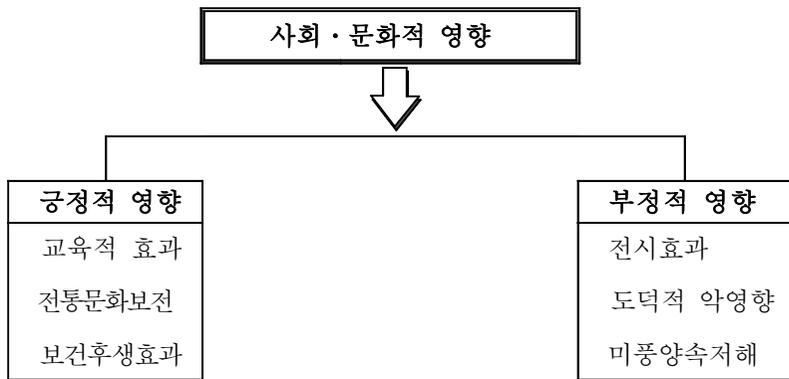
매치슨과 월(Mathieson & Wall)은 사회·문화적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인구통계학적 구조, 사회적 쾌적성, 단체의 회원, 개인의 안정과 사생활, 심리적 특성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다.

독시(Doxey)는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주민의 전반적인 수용태도를 행복감의 단계, 무관심의 단계, 분노의 단계, 적대감의 단계, 목인의 단계와 같은 5단계로 지표화 하였다.

연구지역을 보면 특정의 소규모 인종집단의 사회나 작은 나라, 또는 제3세계 국가에 편중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³¹⁾.



<그림 II-4> 사회·문화적 영향



자료 : Mathieson and Wall(1982), p.133을 근거로 논자 재작성.

30) 전경수, “제주도의 관광개발과 지역문화보전을 위한 제언”, 「제주도연구」 제주도연구회, 1985, p. 37.

31) Smith, S. *Recreation Geography*, Longman, London, 1978, p. 19.

(1) 사회·문화적 영향의 긍정적 측면

첫째, 관광은 직접적 경험을 통해서 풍물을 보고 사물에 접한다는 점에 있어서 뛰어난 '교육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관광이란 관광객에게 있어서 어떤 것인지 직접적 체험을 뜻하고 있다³²⁾. 자파리(Jafari)는 교육적 효과, 국제평화이해, 사회·인종·종교적 장벽타파 등이 있다고 하였으며, 원주민 문화의 이해, 새로운 사상의 도입, 전통예술의 발전, 문화교류가 있다고 하였다.

둘째, 스웨인(Swain)은 관광객의 수요가 '전통문화의 보전'을 발전시켜 관광이 지역 공동체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셋째, 여가활동은 인간성 회복을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다른 자연이나 문화 등을 접함으로써 인간의 변화욕구를 최대한 만족시키게 되는데, 개개인에 대한 관광효과는 사회 대중을 위한 '보건후생 효과'를 들 수 있다³³⁾.

(2) 사회·문화적 영향의 부정적 측면

첫째, 관광객의 소비형태를 접하게 되는 목적지 주민들이 이를 모방하게 되거나 자신들의 전통적인 생활관습에 불만을 느끼게 하는 등 기존가치 체계의 붕괴를 가져온다³⁴⁾며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를 지적했으며, 자파리(Jafari)는 문화적 불이해, 외국인 혐오증, 문화·종교·예술의 상품화, 전시효과, 매춘, 문화접변, 범죄 등이 있다고 하였다.

둘째, 아처(Archer)는 관광의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의 하나로 관광지의 '도덕적 악영향'을 지적했다. 매춘(Prostitution), 범죄(Crime), 도박(Gambling)의 증가는 관광개발의 최악으로 자주 제시된다.

트라비스(Travis)는 문화의 타락, 문화의 상품화, 도박, 알콜리즘 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 문화적 갈등을 야기하며 전통문화의 파괴 및 상업화를 야기 시키기도 한다³⁵⁾.

셋째, 여러 계층이 관광객이 유입됨으로써 불건전한 관광행동이 나타

32) 김태영, 「현대관광학개론」, 백산출판사, 1993, pp. 118-119.

33) 김충호, 「관광사업경영」, 기문사, 1989, pp. 143-144.

34) 신현주, "관광산업 발전의 그 지역 주민생활에 미치는 사회 문화적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협회, 1991, p. 72

35) 김기동, 전개논문, p. 13.

나 지역자체의 고유한 ‘미풍양속이 저해’되며, 관광지에는 관광객이 관광 분위기에 젖어 저속한 언행을 하기 쉽고 성인들의 행위가 그대로 지역주민들에게 답습으로 ‘교육적 문제점’을 야기한다³⁶⁾. 관광의 결과로 관광지의 공예품과 수공예품은 스타일·형태·생산취지에서 변화가 생긴다. 원래는 종교적 또는 의례적 목적으로 생산되었던 공예품이 지금은 관광상품용으로 생산이 된다. 따라서, 관광은 가짜 전통공예품의 촉진을 가속화시키기도 한다³⁷⁾.

3) 환경적 영향

환경적 영향은 이전에는 경제적 영향 또는 사회·문화적 영향과 동일한 맥락에서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 들어 독립된 차원으로 크게 관심을 가지는 관광영향이다. 특히, 종래에 자원보전, 환경오염의 범주에서 논의되어 오던 환경적 영향에 대한 관심은 생태관광 개념이 대두되면서 중요한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³⁸⁾.

비스트라노웨스키(Bystranowski)는 관광개발을 촉진하는 것과 환경보전을 옹호하는 것 사이에 세 가지의 다른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첫째, 관광과 환경보전은 분리된 채로 상호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은 실질적인 변화 때문에 오래 지속될 가능성은 없으며, 대부분 공생적 관계나 갈등 관계에 의하여 계승이 된다.

둘째, 관광과 환경보전은 상호의존적이거나 공생적 관계를 취한다.

셋째, 관광과 환경보전은 갈등관계에 있다. 특히, 관광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때 더욱 그러하다고 하였다³⁹⁾.

코헨(Cohen)은 관광의 환경적 측면에 대한 관점은 편익적 측면과 훼손적 측면의 두 가지로 대별되며, 관광의 환경적 영향에 미치는 요인으로

36) 이유관, "관광산업이 사회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1989, p. 73

37) 한국관광공사, 전개서, p. 121.

38) Altman, John, 'Tourism Dilemmas for Aboriginal Australian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89, p. 16.

39) 김기동, 전개논문, pp. 15~16.

관광지 이용과 개발의 강도, 생태계의 탄력성, 관광개발업자의 관광에 대한 태도, 관광개발에 의한 변형의 성격을 지적하였다.

(1) 환경적 영향의 긍정적 측면

첫째, 관광은 ‘유적의 보전과 관리’를 촉진시키는데, 매력성을 가진 마을은 주된 관광자원이 되며, 마을단장으로 추가적인 매력을 더하게 된다고 한다.

둘째, 관광은 오래된 건물과 지역을 완전히 새로운 ‘관광편익시설 및 여가시설 확충’으로 변형시키는 자극제가 되기도 한다.

셋째,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자원관리로서 관광은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관광객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주기 위해 ‘행정력의 도입과 계획적인 통제’를 가하기도 한다. 통제수단은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다양하다. 유럽에서는 교통수단을 제한하고, 아프리카에서는 야생동물공원내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2) 환경적 영향의 부정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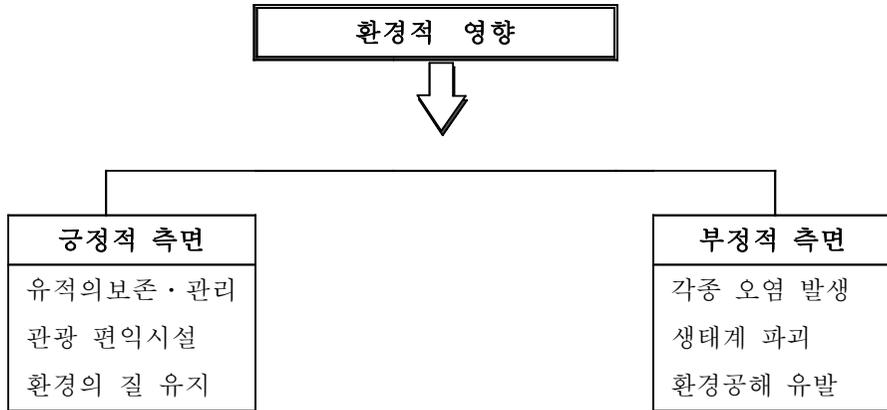
첫째, 관광은 각종 교통수단을 필요로 함으로써 대기오염, 소음공해, 쓰레기와 폐기물에 의한 토양오염문제 등 ‘각종 오염 문제’를 야기시킨다⁴⁰⁾.

둘째, 관광활동으로 토양이나 식물의 변화를 초래하는 한편 야생동물의 ‘생태계 변화’ 등 악영향을 미친다.

셋째, 관광자에 의한 사적이나 자연환경의 훼손이나 관광개발로 인한 지형, 지세의 변화 등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관광지의 쓰레기 등 폐기물 오염과 수질오염, 그리고 관광자의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소음문제 등의 ‘환경공해’를 유발시키며, 지역미관과 어울리지 않은 관광시설의 건설로 인한 심미적 부조화, 관광지의 무계획적이고 무질서한 팽창, 일시적인 관광자 급증으로 인한 ‘시설의 과밀 및 혼잡문제’ 등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관광으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종합해 보면 다음의 <그림 II-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0) 한국관광공사, 전개서, p. 134.

<그림 II-5> 환경적 영향



자료 : Mathieson and Wall(1982) p.136을 근거로 논자 재작성.

제3절 관광영향인식에 대한 선행연구



1. 국외연구

지역개발의 일환으로써 관광개발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줄 중요한 경제적 활동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관광개발이 지역사회에 대하여 고려할 만한 긍정적,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관광영향’(Tourism Impact)에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⁴¹⁾.

마드리갈(Madrigal)에 의하면 관광의 현상은 매우 다양하고, 관광영향 연구에 대한 접근방법도 여러 가지 있으나, 주로 “경제적 측면과 문화인류학”에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분야가 중요한 연구가치가 있다고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라고 할 수 있으며, ‘관광개발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10여년 정도에 불과하다⁴²⁾고 한다.

‘관광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41) Lankford, Samuel V., and Denis R. Howard, ‘Developing a Tourism Impacts Attitude Scale’,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94, p. 21.

42) 고동완, 전개논문, p. 59.

1970년대는 관광으로 인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득과 비용 측면을 중심으로 다루어 왔고 그 이후에는 경제적 측면 이외에도 사회·문화적 영향과 환경적 영향에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1) “관광”을 보는 시각에서의 두 가지 관점⁴³⁾

매닝(Manning)은 ‘원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문화인류학자는 약물·매춘·도박의 도입, 인종주의, 심리적 심리주의, 문화적 제국주의 등 관광의 해악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였으며, 과거를 황금의 시대로 설정하고 현대사회는 타락을 겪고 있다고 보는데 반해, 경제학자는 고용창출, 외화획득, 자본과 전문가의 유입 등 관광의 편익을 묘사하고 미래의 언젠가에 황금의 시대가 있으며 그것은 관광개발의 덕택으로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문화적 접근은 관광의 편익이 매우 적고 대개 비토착 집단에게 유리하다는데 초점을 맞춰 편익의 애매모호함을 조사하는 반면, 경제적 접근은 기술적 방식에 입각하여 관광개발을 본다는데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린우드(Greenwood)는 관광을 다루는 경제학자들은 지역문화를 고려할 때 자연자원으로 보거나, 공연되는 부분으로 평가함으로써 전적으로 호텔객실, 술, 휘발유, 기념품 구매의 흐름에만 관심의 초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한다.

코헨(Cohen)은 관광사회학에 있어서의 접근방법으로 4가지 요소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는데, 과정적 요소로서 관광은 복합적 덩어리이므로 연구는 과정적인 시각을 갖추어야 하고, 전후관계적 요소로서 관광이 지리적,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배경에서 일어나므로 배경을 고려해야 하며, 비교적 요소로서 분석은 비교학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자적 요소는 외부로부터가 아닌 내부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43) 고동완, 전개논문, p. 28.

그라번(Grabun)에 의하면 관광인류학은 관광자와 관광 그 자체의 성질에 대한 연구 및 원주민과 관광자의 관계를 포함하여 관광지국가의 사회에 대한 관광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정의하였고, 만일 관광인류학의 주제가 다른 제도(종교, 친족, 범류 등)에 대한 인류학의 세계적이고 비교적인 영역에 진실로 어울린다면 관광인류학은 교차문화적(Coss-Cltural)이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스미트(Smith)도 인류학적 측면에 있어 주된 관심은 문화접변에 있으며 인간 문화에 대한 포괄적인 것과 그것의 비교론적 방법에 있다고 보고 있다.

누네츠(Nunez)에 따르면 인류학자는 현지조사에서 원주민과 충분한 신뢰감을 형성해야 하고, 원주민과 관광자 사이의 정확한 관찰을 위해서는 ‘두 마리의 말을 탄 사람’(Roman rider)과 같이 균형된 행동이 필요하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닌 참여 관찰자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파리(Jafari)는 문화인류학의 연구방식으로 국내자적(Ethnic)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국내·외자적 방식을 비교하고 있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야 관광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균형적인 수준에서 체계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지만 문헌조사에 한계성이 있다.

다비스(Davis)는 관광이 공급자적 측면에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관습화된 영향에 대한 연구’가 무시되어져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에 대한 인식은 관광의 경제적 영향을 일반적으로 환영하는 반면, 관광개발의 많은 사회적, 생태적 결과들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대체적으로 인정되고 있다⁴⁴⁾.

2) 관광영향연구의 골격

관광영향이란 지역주민과 관광객들간의 상호접촉으로 출현하게 되는 사회적 관계의 산출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코헨, 로빈슨, 피잠(Cohen, Robinson, Pizam)은 관광의 사회·문화적

44) 김기동, 전개논문, p. 20.

영향에 관한 접근방법으로서 관광목적으로 방문하는 관광객과 이들을 받아들이는 지역주민들의 행태적 특성 및 지역사회와 관광객들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상호효과를 평가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어떤 지역이 관광지로 개발하고 나서 점차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변화에 가는 과정에서의 장기적인 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과, 특정관광에서의 관광객·관광지주민간의 접촉이 지역주민의 태도에 따라 동태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으로 보는 두 가지 측면이 ‘관광개발로 인한 영향연구의 골격’이 됨을 시사하고 있다.

독시(Doxey)는 바베이도스와 나이아가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감정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틀을 연구⁴⁵⁾하였으며 지역주민의 다양한 분노정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는 ‘관광객들에 의해 지역주민의 생활양식이 파괴된다는 위험성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분노가 발생한다’라고 하였으며, 연구결과에 따라 기대의 단계(Euphoria), 냉담의 단계(Apathy), 역정의 단계(Annoyance), 적대감의 단계(Antagonism)로 분노지수를 나타냈다.

매치슨과 월(Mathieson & Wall)은 독시(Doxey)의 분노지수(Iritation Idex)를 이용하여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고 있는데, 그는 지역주민들이 관광개발의 초기 단계에서는 관광개발에 열성적이며 관광객을 환영하는 행복감에 젖게되고,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주객간의 관계가 공식화되어 관광객들을 단순히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삼게되고, 이와 같은 비정적인 상호관계가 지속되어 관광산업 자체가 일정한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면 지역주민들은 분노의 단계로 접어들고, 그러한 현상이 더욱 악화되어 관광객들의 행동 그 자체를 죄악시하고 공공연하게 분노의 감정을 표시하게 되는 등 관광객들을 적대시하게 되어 관광객에 대한 반감이 그 절정을 이루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현실 상황에 체념하게 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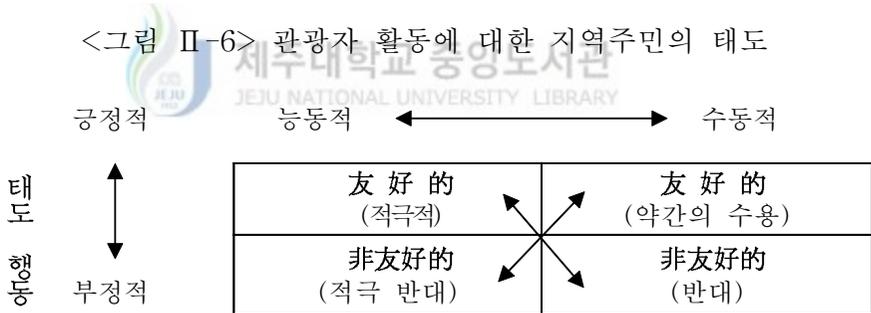
이러한 단계별 변화는 측정상에 무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이와는 다른 시각이 관광지 지역단위 연구에서 고려될 수 있다.

45) Doxey, G. V, 'A Casuation Theory of Visitor- Resident Irritations' Methodology and Research Inferences', *Proceedings of the 6th Annual Conference of The Travel Research Association*, 1976, p. 195.

즉 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무관한 일반인들의 의식 구조이다. 관광지의 모든 지역주민이 관광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할 수 없으며 각기 다른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지역주민과 일반인들의 생각은 천차만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그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용인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바람직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그들의 생활영역이 침해되지 않은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그들의 인내정도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래 <그림 II-6>은 동태적인 주민의 태도변화 가능성을 특성별로 유형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즉,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 집단 또는 개인의 태도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 활동적, 수동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자료 : Mathieson and Wall(1982), p.139를 토대로 하여 논자 재작성.

3)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인식에 관한 연구

피잠(Pizam)은 ‘관광개발이 지역주민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연구에서 관광개발로부터 얻어지는 개인적 혜택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들 수 있는데, 인구 및 사회통계학적 특성은 나이, 성별, 교육수준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비교적 관련이 적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⁴⁶⁾.

머피(Murphy)는 ‘관광영향 인식의 요인’을 크게 관광산업에 대한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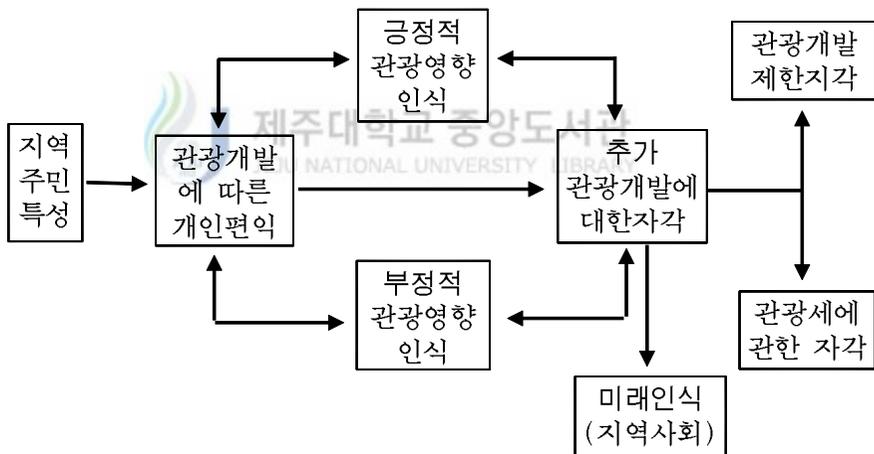
46) 김기동, 전개논문, p. 22.

적인 경제적 의존, 그 지방에 있어서 관광산업의 중요성, 지역주민과 방문자간의 상호 행동의 유형과 범위, 그리고 지역의 전체 관광개발 수준으로 설명하고 있다.

랭크포드(Lankford)와 하워드(Howard)는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를 측정하는 표준화된 척도로 Tourism Impact Attitude Scale(TIAS)을 개발하였는데 지방의 관광개발에 대한 관심과 개인적 그리고 지역사회의 이익의 요인으로 척도화 하였다.

알렌(Allen)은 관광개발이 증가할 수록지역사회의 주민 유대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과 관광개발이 낮은 수준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림 II-7> 지역주민의 관광인식



자료 : Perdue, Lonf and Allen(1990) p.589에서 재인용.

퍼듀와 롱, 알렌(Perdue, Long, Allen)은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은 관광영향의 긍정적 인식과는 전적으로 관련이 있고, 반면 부정적 인식과는 부정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관광개발의 제한에 대한 지지는 관광영향의 긍정적 인식 및 추가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와 부정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농촌지역 주민들은 관광개발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는데, 이러한 인식은 지역사회는 관광개발 수준 및 전체 경제활동과 관련이 있음

을 밝혔다. 즉 관광개발 수준이 낮은 농촌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이 높은 주민들보다 낮은 주민들이 관광개발에 대하여 더 긍정적이지만, 관광개발 수준이 높은 농촌지역에서는 오히려 경제활동이 높은 지역주민들이 더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세계관광기구(WTO)의 보고서⁴⁷⁾에 의하면 지역사회로의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은 해당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이러한 변화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혼재되어 있는데, 관광영향 가운데 긍정적 측면으로서 지역 내 기존시설 및 하부구조의 개선, 경제적 편익의 창출, 자연 및 문화 자원의 보존, 고용구조의 발전, 교육기회의 증가 등을 꼽고 있다. 반면 부정적 측면에서는 시설 및 하부구조에 대한 과밀이용, 사회 경제적 불안, 문화적 전통과 자연환경의 훼손 등을 들고 있다. 관광의 이러한 양면성은 결국 관광지 주민에게 있어서는 관광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편익과 비용의 측면으로 간주된다.

지역주민의 관광에 대한 인식은 지역내의 관광개발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는데, '관광영향과 향후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은 인구 통계학적 속성(나이와 성별, 교육수준, 고향여부, 지역내 거주 년수, 거주지역, 직업) 및 사회적 특성(관광객 접촉, 접촉유형)에 따라 인식이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지역 관광사업의 중요성 및 관광개발의 수준, 의사결정에의 주민참여에서도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⁴⁸⁾.

밀맘과 피잠(Milnam & Pizam)은 '관광영향을 관광지주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관한 연구'에서 관광을 통해 경제적 편익의 확대를 기대하게 되고 이러한 편익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관광의 사회적·환경적 영향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보고 있다.

브로암과 버틀러(Brougham & Butler)는 관광지주민의 의식구조와 관련하여 관광객과의 접촉수준, 거주연한, 연령, 언어 등의 각 개인별 특성의 차에 따른 모델의 실증적 검토를 시도하였으며,

47) WTO, Risk of Saturation or Tourist Carrying overoad in Holiday Destations. 1983. p. 83.

48) 김기동, 전개논문, p. 24.

퍼듀와 롱, 알렌(Perdue, Long, Allen)은 관광으로부터 얻는 편익변수를 통제한 후, 특정 관광개발 정책 또는 추가관광 개발을 지지하게 되는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는 관광영향의 긍정적 인식부분을 발견하였다. 다만 그들은 어떠한 조건하에서 지역주민들이 반감을 갖는지, 또한 그들이 그와 같은 반응을 나타낸 이유가 무엇인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한편, 피어스(Pearce)는 관광지주민의 관광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근본 원인은 '사회적 비대칭성'(Social Asymmetry)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으며, 매치슨과 월(Mathieson & Wall)은 관광객과 관광지주민간의 관계는 불균형적, 비형평성적 관계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시각과는 달리 압(John Ap)은 관광지주민과 관광객간에 교호작용이 존재한다고 보고 상호간 이점을 배우고 줄 수 있으며, 또한 새로운 지식을 얻는데 이로인한 관광객을 무조건 배격하고 감정을 악화시키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관광지주민과 관광객간의 비대칭적 또는 불균형적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교호작용 관계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2. 국내연구

국내의 경우에는 1980년대 중반 이후에 관광의 사회·문화적 영향 및 환경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⁴⁹⁾.

‘관광영향에 대한 경주지역주민 태도 연구’⁵⁰⁾에서 관광의 경제적·사회문화적·환경적 영향을 중심으로 경주 지역주민을 상대로 연구한 결과, 사회 문화적 영향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 반응을, 경제적·환경적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화적 영향에서는 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설문응답자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대학이상 집단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49) 김석순, “제주지역 청소년의 관광영향 인식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1997. p. 36.

50) 조배행, “관광영향에 대한 경주지역주민 태도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1986. p. 32.

‘관광현상이 원주민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 연구’⁵¹⁾에서 관광의 영향에 관한 15개의 항목을 제주시의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제주도 발전, 탐라문화의 중요성 인식, 지역문화 발전, 관광지 여가활동, 외부인에 대한 이해 등에 긍정적 반응을, 청소년 교육환경 악화, 절약정신의 쇠퇴, 문화의 의미상실, 삼무정신과 탐라정신의 악화, 풍기 문란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관광개발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 연구’⁵²⁾에서 속초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회적 영향은 지가의 변화, 범죄발생의 증가로 나타났고, 문화적 영향은 민박문화의 발달, 건축문화의 변화를 지적했다. 부정적 영향 가운데, 사회적 영향의 부정적인 측면은 소비성조장, 주민 불협화 조성, 산업구조의 변화, 건전한 인간관계의 소실과 퇴폐풍조 조성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영향의 부정적 측면으로는 고유문화의 상실, 미풍양속의 저해와 교육문제 등으로 지적되었다.

‘관광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연구’⁵³⁾에서는 국내 최대관광지의 하나인 ‘설악산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 취업 기회증가, 공공시설 혜택, 외국인에 대한 이해, 단체활동 증가, 건축문화의 현대화 등이 긍정적이었고, 부정적 영향으로는 미풍양속의 파괴, 교육환경 악화, 소비성향 증가 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비성향이 증가했느냐는 항목에서는 상당히 그렇다는 답변으로, 관광으로 인한 소비 성향적 풍토가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지에서 관광직에 종사하는 이들 주민도 다른 관광지로 관광자가 되어가고 싶다고 대다수의 응답자가 반응을 보였다. 관광자에 대한 긴장감이나 이질감은 약간 해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광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연구’⁵⁴⁾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 조사법을 이용 경제적, 사회·문화

51) 심상도, “관광현상이 원주민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1986, p. 34.

52) 김병문, “관광개발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 「관광학연구」, 한국관광학회 제12호, 1988, p. 42.

53) 김월호, “관광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의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1989, p. 44.

54) 이 숙, 전개논문, p. 47.

적, 환경적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긍정적 관광영향에 대해서는 관광객 수에 대한 견해 > 관광객에 대한 느낌 > 거주기간의 순서로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 관광영향에 대해서는 관광객 수에 대한 견해 > 학력의 순서에 따라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광지화가 주변농촌지역과 주민의식에 미친 영향연구’⁵⁵⁾에서는 관광지의 특성과 관광객의 관광활동이 결합되어 발생하는 관광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쳐 관광지 주변 농촌 지역에 어떻게 작용되어 변화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밝혔다.

‘제주도민의 관광의식조사 연구’⁵⁶⁾에서는 제주도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여를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제주지역의 관광산업에 대한 제주도민의 전반적 관광의식을 재평가하여 21세기를 대비한 새로운 의식 개선의 방향을 모색키 위한 연구로서 주요 특성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제주도민은 가장 기본적인 관광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가 미약하다.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성장전망에 대해서도 매우 낙관적이나 호의적 감정이 크게 결여되어 있으며, 주요 관광 지표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저조한 가운데 관광의식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둘째, 제주도민은 관광의 경제적 영향을 중시하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몫은 적다고 생각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관광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더 긍정적인 반면,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의하는 경향이 높다.

셋째, 제주도민은 관광부조리 관련 경험이 많고 그 중에 관광객에 대한 불친절 행위, 사기 및 강압적 행위, 호객 및 유인행위, 각종 음성 수수료의 거래 관행 등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의식하고 있다.

넷째, 제주도민은 관광관련 주체들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

55) 김영양, “관광지화가 주변농촌지역과 주민의식에 미친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1, p. 49.

56) 허향진·최병길·오상훈, “제주도민의 관광의식 조사 연구”, 「동아시아 연구논총」 제8집,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1997, p. 67.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행정 당국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다.

다섯째, 제주도민은 앞으로 제주관광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지극히 낙관적이며, 제주관광의 경쟁력 향상 및 고소비형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주요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다.

여섯째, 평소 관광에 대한 호감도, 거주지의 관광개발수준, 직업의 관광 관련성 등이 높을수록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도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외국 유사지역의 일반적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 결과 몇 가지 주요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주지역 경제에서 관광산업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 지역주민의 개인적 배경에 무관하게 긍정적 의식이 매우 높게(90.2%)나타나고, 향후 10년 간 제주관광산업의 성장 전망에 대한 신념이 대체로 낙관적이다.(78.3%)라고 생각하며, 제주관광의 국제화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신념도 대체로 낙관적이다. 도민 관광의식 개선 방향에서는 경제적 차원과 사회 문화적 차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자연발생적으로 관광의식이 형성 변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공공부문의 개입이나 민간부문의 노력 여하에 따라 관광의식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관광객 유형에 따른 관광지주민과의 관계 연구⁵⁷⁾에서는 관광객의 지역 시각이 폭이 넓을수록 지역사회를 이해하기보다는 관광객 자신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쪽으로 지역사회를 보는 시각이 강하므로, 이러한 유형의 관광객들이 늘면 늘수록 지역사회의 통제능력이 점차 상실된다는 것이다. 관광객의 숫자가 많아진다고 무조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관광에 대한 영향인식 관계가 시간적 흐름의 과정에서나 관광객의 숫적 증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57) 한국관광공사, 전개서, pp. 141-142.

제4절 연구지역의 특성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 과제의 해답은 관광목적지라는 환경적 특성을 가지는 지역사회의 ‘관광지 주민을 대상으로 관광영향에 대한 인식’을 조사·검증함으로써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천혜의 관광지인 쾌적하고 활기찬 평화의 도시이며 자연관광자원 의존형 관광지인 ‘서귀포시’를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1. 관광 동향

제주관광산업은 감귤과 더불어 지역경제의 양대 축을 이루는 최대산업으로서 관광지로서의 천혜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고⁵⁸⁾ 세계적인 관광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자원활용과 개발정도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관광기반시설의 확충,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 독특한 관광상품 개발 등에 대한 유형·무형의 투자가 대내외적인 한계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⁵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2002년 월드컵 개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 국제자유도시 개발 등을 통하여 지역관광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계기로 활용함은 물론 해외관광시장의 개척, 민자유치의 확대,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 관광부조리 및 불편해소 시스템구축, 관광홍보의 강화 등 관광의 최종목적지로 정착시키고자 추진 중에 있다.

1) 관광객 동향

제주도 관광객 내도 현황은 아래 <표Ⅱ-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과년도에 비해 2.1% 증가한 4,197천명이 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58) 제주도, 도정백서, 2001, pp. 531~533.

59) 서귀포시, 시정백서, 2001, p. 337.

<표Ⅱ-2> 제주도 관광객 내도 현황

(단위 : 천명)

구 분		2000년	2001년	증감율(%)
합 계		4,110	4,197	2.1
내 국 인	소 계	3,822	3,907	2.2
	일 반 단 체	627	698	11.32
	수 학 여 행	311	326	4.82
	신 혼 부 부	240	183	-23.75
	기타(가족,개인 등)	2,644	2,699	2.1
외 국 인	소 계	288	290	0.7
	일 본	147	147	0
	제 일 교 포	15	10	-33.3
	미 국	11	10	-9.09
	대 만	2	2	0
	기 타	113	121	7.08

자료 : 서귀포시, 주요행정총람, 2002.

내국인은 2.2% 증가한 3,907천명이 방문하였으며, 특히 신혼부부는 183천명이 방문함으로써 과년도에 비해 23.75%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은 과년도 대비 0.7% 증가한 290천명이 제주를 방문하였으며, 두드러진 현상은 제일교포 방문객이 과년도 대비 33.3% 감소한 10천명이 방문한 걸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 <표Ⅱ-3>는 제주도 관광수입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Ⅱ-3> 제주도 관광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년	2001년	증감율(%)
계	1,497,537	1,495,405	-0.14
내국인	1,087,670	1,091,651	0.37
외국인	409,867	403,754	-1.49

자료 : 서귀포시, 주요행정총람, 2002.

관광객 내도에 따른 2002년도 관광수입으로는 과년도에 비해 0.14% 감소한 1,495,405백만원으로서, 내국인은 0.37% 증가한 1,091,651백만원이며 외국인은 1.49% 감소한 403,754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의 대표적 유료 관광지는 시에서 직영하는 3개폭포(천지연, 천제연, 정방)가 있으며, 사설 관광지로서 해양수족관(퍼시픽랜드), 관광식물원(여미지), 중문민속 박물관(씨빌리지)와 2001년도 개관한 화락원(파라다이스내 이승만박물관) 및 테디베어뮤지엄(관광단지내 곰인형박물관), 시립해양공원 등이 있다.

아래 <표Ⅱ-4>는 서귀포시의 관광객 및 관광수입 추세를 도표로 나타낸 것으로서 2000년도 4,347천명보다 2.7% 감소한 4,228천명이고, 관광수입은 과년도에 비해 2.4% 증가한 12,790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Ⅱ-4> 서귀포시 관광객 및 관광수입 추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단위 :천명, 백만원)

유료 관광지별		2000년도		2001년도		비율(%)	
		인원	수입	인원	수입	인원	수입
합 계		4,347	12,490	4,228	12,790	-2.7	2.4
시 직 영	소 계	2,677	3,909	2,607	3,810	-2.6	-2.5
	천 지 연	1,518	2,205	1,503	2,176	-1.0	-1.3
	천 제 연	569	842	548	820	-3.7	-2.6
	정방폭포	590	862	556	814	-5.8	-5.6
시 직 영	소 계	1,670	8,581	1,621	8,980	-2.9	4.6
	해 양 수족관	364	1,387	325	1,391	-10.7	0.2
	관 광 식물원	1,282	7,166	1,270	7,434	-1.0	3.7
	중 문 민속박물관	24	28	26	155	8.3	453.6

자 료 : 서귀포시, 시정백서, 2001.

시직영 관광지별 관람인원은 2,607천명으로서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지연폭포인 경우 1,503천명으로서 1.0% 감소하였고, 천제연폭포인 경우 548천명으로서 3.7% 감소하였으며, 정방폭포인 경우 556천명으로서 5.8%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설 관광지별 관람인원은 1,621천명으로서 2000년도에 비해 2.9% 감소하였으며 관광수입은 과년도에 비해 4.6% 증가한 8,980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족관인 경우 10.7% 감소한 325천명이, 관광식물원은 1.0% 감소한 1,270천명이 방문하였으며, 유일하게도 중문민속박물관은 8.3% 증가한 26천명이 방문함으로써 관광수입도 453.6% 증가한 155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외래관광자의 관광행태

제주도관광협회가 2001년도 제주를 방문한 관광자를 대상으로 관광행태를 분석한 결과⁶⁰⁾를 외국인(일본인, 중국인)과 내국인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본인 관광객

첫째, 응답자의 82.95%가 관광목적으로 제주를 방문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는 관광활동은 40.25%가 골프였으며, 다음으로 관광지등 풍물관람이 3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관광결정동기에 관한 조사에서는 39.92%의 응답자가 동행인/단체의 결정에 의해 제주관광을 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31.23%의 응답자는 친지/친구의 권유로 제주관광을 하게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여행사 홍보로 제주관광을 하게되었다는 응답은 13.44%를 차지하고 있다.

넷째, 참여형태로는 일반단체여행이 39.8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60) 제주도관광협회, 내국인·외국인(중국인, 일본인) 제주관광실태조사, 2001, pp.36~52.

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소단위 그룹여행이 35.55%를 차지하고 있고, 개별 여행도 13.67%를 차지하고 있다.

다섯째, 응답자의 39.20%가 제주를 레저/스포츠의 최적지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다음으로 29.20%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곳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여섯째, 관광발전을 위한 편의시설로는 테마공원(20.94%)과 문화공간(20.42%)을 선택하였으며, 내외국인 카지노도 16.75%가 선택하였다.

일곱째, 직접 원하는 체험활동으로는 레저/스포츠활동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44.50%), 다음으로 낚시(14.00%), 해녀와 수산물 채취(12.00%) 등을 꼽았다.

(2) 중국인 관광객

첫째, 여행목적으로는 일반단체여행이 63.60%로 가장 많고, 가족여행과 레저/휴양도 각각 13.20%와 11.20%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관광활동으로는 관광지 등 풍경관람이 82.66%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카지노가 6.45%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제주관광의 결정동기는 여행사의 홍보가 33.3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동행인/단체 결정이 31.30%를 차지하고 있다.

넷째, 여행경비는 카지노이용객 등이 150만원이상을 사용하였으며, 40만원 이하가 39.44%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에 대해서 갖는 이미지로는 61.38%가 수려한 자연경관을 꼽았으며, 26.83%는 깨끗한 자연경관을 선택했다.

여섯째, 제주관광에 필요한 시설로는 전체 응답자의 43.75%가 테마공원을 꼽았으며, 문화공간과 내외국인 카지노를 선택한 응답자도 각각 30.21%와 11.46%를 차지하고 있다.

일곱째, 직접 원하는 체험활동으로는 응답자의 23.89%가 해녀와 해산물 채취를 꼽았으며, 레저/스포츠 활동, 전통 음식 만들기를 선택한 응답자도 각각 22.78%와 14.44%를 차지하고 있다.

(3) 내국인 관광객

첫째, 제주방문 목적으로는 관광이 75.86%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연수와 사업과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객이 4.29%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제주를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들의 주요 관광활동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레저 활동(해수욕, 육/해상 레저, 낚시, 골프, 사냥 등)이 48.68%이며, 관광지 등 풍물관람이 22.23%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본 조사에 응답한 응답자의 여행 참가형태는 소단위 그룹여행(23.60%), 신혼여행(21.01%), 일반단체여행(17.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제주관광의 결정 동기로는 동행인/단체 결정이 36.32%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친구/친지의 권유가 23.09%를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 제주에 관한 평소 이미지로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장 많이 꼽고 있으며(55.43%), 다음으로는 유명관광지라는 인식(23.14%)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기타 관광편의시설에 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0.37%가 대체로 만족을 표시하였으며, 보통 이상이 84.73%를 차지하고 있다.

일곱째, 제주 관광시 원하는 체험활동에 관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7.71%가 레저/스포츠활동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26.40%의 응답자가 해녀와 해산물 채취를 선택했다.

2. 관광개발 추진실태

제주지역의 관광개발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정책은 1964년 건설부에서 주도한 ‘제주도건설종합계획’에서 비롯되었으며, 1964년 건설부 조사결과 국내에서 제주도가 비교우위를 점하는 관광자원은 자연 환경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관광개발을 시작하게 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개발, 산업개발, 도로확충, 동력자원개발 등이다. 이 중 관광개발이 기본방향이 되어 향후 제주개발의 기초를 이루게 되었다.

1966년 제주도가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어 건설부 주관으로 이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다음해에 수립하였고, 1970년에는 특정지역종합개발계획의 보조적 성격을 갖는 ‘제주도종합개발 10년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효과는 미흡함으로써 1960년대의 계획들은 1973년 ‘제주관광종합개발계획’의 수립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계획은 1970년대 제주개발의 기본 계획이 되었으며 1973년에서 1981년까지 9년 간 모든 산업을 관광주도형으로 개발하고자 하였다⁶¹⁾.

‘80년대에 들어와서 정부는 ‘관광자유지역설치특별법’ 및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제정 검토⁶²⁾하였으며 1983년 ‘특정지역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시안으로 성립되었는데 1년에 걸쳐 완성된 이 안은 1985년부터 2001년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제주도 전역을 개발대상으로 하였다. 그 내용은 국제자유지역 조성, 관광개발, 지역개발의 3개 분야 계획을 중심으로 하여 관광계획은 중문지역에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성산포일대에 해양관광단지를 꾸미며, 민속어촌 등 기타 14개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것이다.

현재 제주도는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하여 홍콩,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을 모델로 선정·벤치마킹, 중앙정부의 지원하에 제주형 친환경적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제주도가 주체가 되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체제로 추진될 것이며,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사회간접시설과 선도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상액은 총 4조7,714억 원(SOC에 대한 공공부문 투자와 선도프로젝트 개발사업비만 계산)이고 투자진흥지구제도 운영 등으로 유치되는 민간투자비 까지 합하면 개발 총 투자비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61) 허향진외, “제주관광산업의 실태와 발전방향”, 「경영논집」, 제주대학교, 1997, p. 40.

62) 제주일보, 제주도개발특별법제정 관련기사, 1982. 8. 9. 3면.

<표 II-5>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7대 선도프로젝트

프로젝트 구분	제주공항자유무역지 조성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휴양형주거단지 개발	쇼핑아웃렛개발	관광미항 개발	중문관광단지 확충	생태, 신화역사, 공원 조성
위 치	제주시용담동(공항부근)	제주시아라동	서귀포시예래동	시외곽지역	서귀포시송산동	서귀포시중문동	생태·역사적보존가치 높은 지역
면 적	436,400㎡	446,833㎡	226,800㎡	200,000㎡	47,500㎡	101,180㎡	4,900,000㎡
사업비	2,500억원	5,000억원	6,000억원	300억원	1,000억원	3,000억원	1,500억원

자료 :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 제주국제자유도시 소책자, 2001.

1) 관광개발 동향⁶³⁾

(1) 관광개발 여건

첫째, 지리적 여건으로서 국토의 최남단에 위치하여 온화하며 4계절의 구분이 뚜렷하다. 섬에서 섬을 볼 수 있는 수려한 해안경관, 오름·초지의 중산간, 한라산 등 빼어난 자연환경이다.

둘째 인문적 여건으로서 높은 교육수준에 따른 인력확보가 용이하고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높다.

셋째 제도적 여건으로서 국제자유도시건설계획에 따른 육지부와 차별화된 개발이 가능하고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행정적 지원이 용이(통합영향평가제도, 관련 인·허가 사항의 의제처리 등)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I-6> 서귀포지역 관광개발 현황

구 분	관 광 지 개 발 현 장 별
관광단지·지구(3)	중문관광단지. 돈내코관광지. 우보악관광지구.
유 원 지(7)	중문. 강정. 천지연. 정방. 우보악. 예래. 오렌지파크
골 프 장(4)	중문. 서귀포.레이크힐스. 태양.
기 타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컨벤션). 관광식물원(상효동)사업등 추진중

63) 서귀포시, 관광개발 업무편람, 2001, pp. 10~14.

(2) 관광단지·지구

첫째, 중문관광지구는 서귀포시 중문·대포·색달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주시와는 서부산업도로의 개통으로 관광자의 접근이 용이해졌다.

이 계획의 사업개요는 한국관광공사가 개발 주체가 되어 1978년부터 2005년도를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면적은 3,562㎡, 주요시설로는 회의시설 20개소. 사업시설 8개소. 운동오락시설 5개소. 휴양문화시설 4개소. 공공편익시설 및 천제연공원, 중문 해수욕장 등 기타녹지시설이다.

둘째, 돈내코관광지는 상호동 1460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성 계획 면적은 152,300㎡이고 사업비는 772억원(공공68, 민자704)을 투자하여 기존시설 및 도입시설(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상가 및 기타시설) 추진을 주요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셋째, 우보악 관광지구는 서귀포시 상예·색달, 남군 창천일원을 대상으로 2,707㎡의 면적에 사업비 3,532억원(투자실적 2,249백만원)을 투자하여 '94년부터 2004년도를 완공목표로 시행(대유산업)중단된 상태로서 주요 시설계획으로는 숙박시설, 상업시설, 운동오락시설 등이 있다.

(3) 유원지

본 지역 유원지는 유원지 결정 7개소(5,034,040㎡)로서 사업 시행자 지정 2개소(중문, 오렌지파크, 강정일부)와 사업시행자 미지정 5개소(강정, 천지연, 정방, 우보악, 예래)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 중문유원지는 면적이 2,271,287㎡, 사업비 5,227억원을 투자하여 한국관광공사가 시행 중에 있으며, 주요시설계획으로는 숙박시설(18개소), 마리나, 중문랜드, 관광식물원, 천제연공원 등이다.

둘째, 강정유원지는 풍림산업에서 일부면적 97,400㎡(2단계 지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콘도246실, 농수산물판매소, 주차장, 휴게소, 어린이놀이터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554억원을 투자하였다.

셋째, 오렌지파크유원지는 현재개발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콘도297실, 휴게실, 전망휴게소, 음식점, 하수처리장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투자실적은 111억 원이다.

넷째, 천지연유원지는 관광농원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정방유원지는 민박촌, 서블과지유적지 등을 시설계획으로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미지정된 상태이다.

다섯째, 우보악유원지 및 예래유원지는 '97. 11월 유원지 결정이 되었으나 사업시행자가 미지정된 상태이다.

(4) 골프장

첫째, 중문골프장은 회원 18홀 규모로서 부지면적은 917,764m²으로서 총사업비 8,634백만원을 투자하여 한국관광공사가 시행·개장('89. 5. 31)·운영 중에 있다.

둘째, 서귀포골프장은 색달동 산24번지에 위치에 있으며, 호텔롯데에서 '97년부터 추진 중이었으나 지금난으로 현재는 공사중지된 상태다.

셋째, 레이크힐스골프장은 중문동 산5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주)레이크힐스에서 1,198,542m²의 부지면적으로 회원 27홀 규모의 사업을 2003년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넷째, 태양골프장은 서흥동 산3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부지면적 1,297,879m², 회원 18홀 및 간이 6홀의 규모로 태양관광에서 추진 중에 있다.

(5) 기 타

첫째, 국제회의시설로서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중문관광단지 2단계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건축규모로는 3,500석으로서 18,792평(지하2층, 지상5층)이고 사업비는 1,806억원(국450, 지450, 출자906)이다. 2002. 12월을 완공 목표로 컨벤션센터+관광엔진센터='관광종합센터'로 상설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

둘째, 관광식물원으로서 사업비 78억원(민자)을 투자하여 상호동에 식물원을 조성(121,739m²)하는 것으로 2002년 하반기 중 착공예정으로 있다.

셋째, 월드컵축구경기장내 민간투자시설단지 조성사업 추진 및 내국인 면세점 유치등 다각적으로 활용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2) 향후 전망

서귀포시는 타도시에 비해 관광자원이 우수하고 각종 관광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제주관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IMF위기 속에 무산위기에 내몰렸던 월드컵경기장을 국고지원 등 최소의 비용으로 건설하였으며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교통의 관문인 제주시가 관광활동의 주요거점의 활동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데 반해 서귀포시는 아직까지도 경유관광지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서귀포시의 관광개발은 향후 급증하는 국내외관광자의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한층 다양한 숙박시설과 서비스시설, 목적지형 레크리에이션 시설 등을 도입하여 관광자가 체류하며 즐길 수 있는 관광활동의 거점화가 요구된다. 각종 시설 확대를 통한 체류기간의 연장은 관광자 지출규모의 증대를 가져오게 되며 이것은 서귀포시 주민의 소득증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장차 서귀포시 관광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각될 중심과제는 우선 각 관광지별 특성을 고려한 개발 즉 ‘특화된 제주관광개발만들⁶⁴⁾ 수행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관광자가 지출한 관광소득을 지역내 소득으로 전류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분별한 관광개발 전략에 따른 자연환경의 파괴와 더불어 지역주민에 대한 지나친 소비풍조의 조장, 부도덕한 가치관의 유도 등 불건전한 주민의식배양이라는 측면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중대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월드컵 개최도시로서 월드컵을 계기로 관광과 스포츠를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적극 육성·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며, 범도민의 지지와 공감대 형성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개발추진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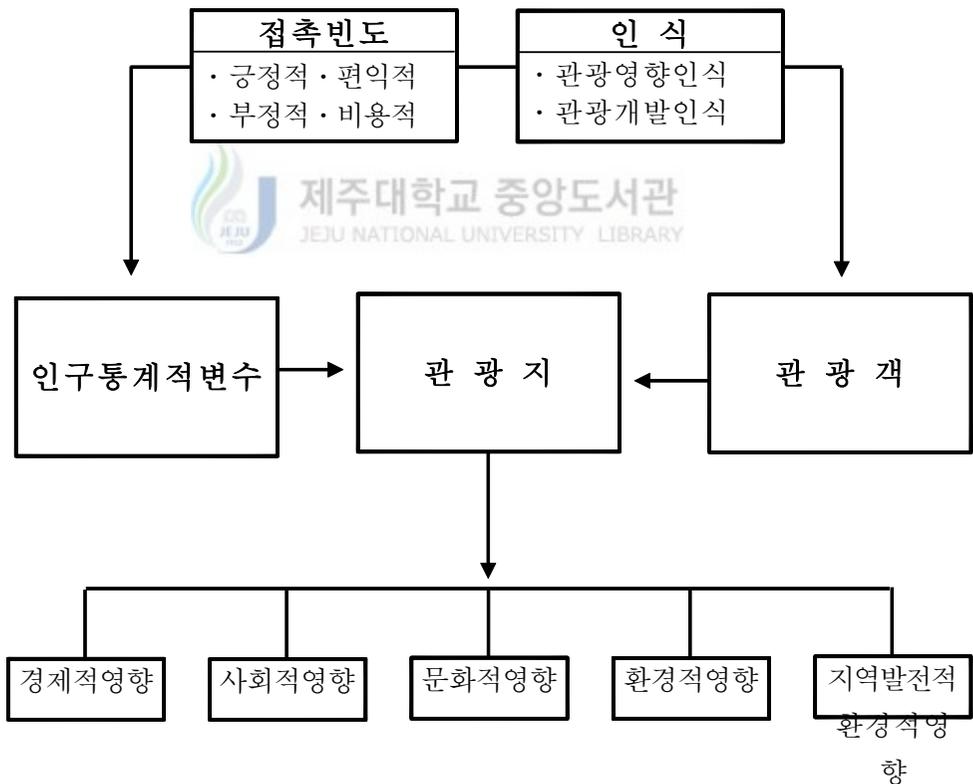
64) 송재호 제주대교수, 한라일보 한라칼럼 참조(특화시대, 태생적 비교우위의 위기·제주다운 제주의 개발구상), 2002. 3. 28, 4면.

제 III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의 모형

이미 제2장 이론적 연구에서 살펴본 매치슨과 월(Mathieson and Wall)의 연구모형을 토대로 논자가 <그림Ⅲ-1>과 같이 수정된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Ⅲ-1> 연구모형



연구모형에 사용된 변수는 인구통계적 변수인 성별, 연령, 거주지별로 구분하였다. 관광영향의 긍정적·편익적 측면 및 부정적·비용적 측면 모두를 고려하여, 사회 변화의 과정에 따른 관광지 주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지역발전적 영향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일정부분 관광개발이 이루어진 서귀포지역 관광지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반응으로 이들의 제 특성이 가지는 관광영향 인식 수준과 이에 따른 관광개발 수용에 대한 감정을 형성함에 있어 관광지 주민의 관광영향 인식 요인에 대하여 규명하고자 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본 논문의 주요 연구모델로 하였다.

또한 관광지 주민에게 관광영향 인식에 차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변수로 직업과 관광과의 관련여부, 관광객과의 접촉빈도 등도 관광영향 인식에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연구모형의 변수로서 고려되었다.

제 2 절 연구가설의 설정

1. 가설의 설정

관광지 주민의 인식에는 관광개발에 따른 관광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공존하고 있으므로 관광영향에 대한 관광지 주민의 인식은 추가 관광개발에 대한 인식에 지지 또는 제한 등 영향 관계를 가진다고 전제하며, 관광영향의 인식은 각각의 영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이는 미래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본다.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관광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일정부분 관광개발이 완료 및 진행중인 천혜의 자연경관과 풍광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관광도시 서귀포지역 관광지 주민들이 여러 가지 주변환경의 여건에 따라 그리고 관광 및 관광객에 대한 관심이나 접촉빈도에 따라 관광영향에 대한 인식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의 가설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광지인 서귀포지역의 주민들이 성별, 연령별, 거주지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직업과 관광과의 관련여부와 관광객과의 접촉빈도 등 변수에 따라 관광영향인식과 관광

개발에 대한 관광영향의 인식에도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이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 관광지 주민의 특성에 따라 관광영향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1> 성별에 따라 관광영향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2> 연령에 따라 관광영향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3> 거주지에 따라 관광영향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4> 관광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간에 관광영향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5> 관광객과의 접촉 정도에 따라 관광영향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 관광지 주민의 특성에 따라 관광 개발에 대한 관광영향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1> 연령에 따라 관광개발에 대한 관광영향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2> 학력에 따라 관광개발에 대한 관광영향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3> 직업에 따라 관광개발에 대한 관광영향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4> 거주기간에 따라 관광개발에 대한 관광영향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5> 거주지에 따라 관광개발에 대한 관광영향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6> 소득에 따라 관광개발에 대한 관광영향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서귀포지역 관광지 주민의 관광영향 인식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1) 관광지

관광지는 관광객의 관광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공간으로서의 관광객의 관광활동을 가능케 할 각종 체반 시설이 갖추어진 지역을 말하며, 관광지역을 형성하는 요소들로서는 관광자원, 관광객, 관광지주민, 숙박시설, 교통·정보센터, 레크리에이션 시설, 음식점, 주점, 기념품판매점, 공공편의시설 등이 있다. 따라서 관광지는 결국 출발지 또는 거주지를 이탈한 관광객의 관광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경관적 조건을 구비한 관광공간으로서 관광자원의 가치와 매력성, 관광객 편의시설의 입지, 관광지로 접속되는 교통수단과 교통로의 접근성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된 관광지역공간을 의미한다.

2) 관광영향

관광은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현상으로 관광으로 인하여 관광지에 나타나는 관광지의 수용력과 관계되어 한계수준을 초과하지 않을 때는 긍정적이지만 초과인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관광의 영향은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관광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요인까지도 포함한다.

3) 인식

인간은 시·청·촉·미·후각 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상의 사물과 사건을 알게되는데 감각기관에의 자극은 감각(sensation)을 초래하며 그러한 감각의 해석을 인식 혹은 지각이라고 한다. 개인에 있어서 현

실이란 단순히 개인의 욕구·가치·경험 등에 근거를 둔 개인적 현상으로 어떤 객관적 현실이 아니라 자신의 지각을 기초로 하여 행동하고 외부의 자극에 반응을 보인다.

제 3 절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서귀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관광지 주민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연구의 전반부에서 문헌연구를 통해 관광지 및 관광 영향연구의 이론적 고찰과 연구대상 지역의 특성을 검토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문에 의한 응답자 자기기입식(Self-administra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요연구과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서귀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관광개발에 따른 관광영향 인식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관광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지역발전적 영향인식을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통하여 각 영향별 인식차이 및 영향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각 변인들을 대상으로 등간척도법을 사용하였다.

관광지 주민들이 관광개발 및 관광영향 인식에 대한 요인들도 관광영향 인식의 변인들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향후 관광개발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등간척도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인구통계적 특성에 대해서는 명목척도를 사용하였다.

2. 표본의 구성 및 특징

모집단은 서귀포지역을 구시가지권(8개동-송산, 정방, 중앙, 천지, 동홍, 서홍, 효돈, 영천), 신시가지권(2개동-대륜, 대천), 중문권(2개동-중문, 예래)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단순무기표집(Simple Random)으로 설문자

를 추출하였다.

설문조사는 서귀포지역에 거주하는 관광지 주민을 중심으로 배포· 실시되었으며, 조사기간은 2002년 9월 23일부터 10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추출된 표본은 300부로서 회수율은 100%였으며, 이 가운데 부적절한 설문지를 제외한 291부를 유효표본으로 하여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표 III-1> 표본의 구성

배 포 지 역	배포량 (부)	무효 설문(부)		유효표본 (부)
		미회수	불성실	
합 계	300	-	9	291
구시가지 - 8개동(송산, 정방, 중앙, 친지, 동흥, 서흥, 효돈, 영천)	200	-	6	194
신시가지 - 2개동(대륜, 대천)	50	-	1	49
중 문 - 2개동(중문, 예래)	50	-	2	48

3. 설문의 구성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설문은 총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각 문항은 크게 관광의 여러 가지 영향 즉 경제적 영향, 사회·문화적 영향, 환경적 영향, 그리고 지역발전적 영향을 묻는 문제와 관광개발 인식 항목, 기타 인구 통계적인 속성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관광영향 인식항목과 관광개발 인식관련 질문항목은 5등급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등급법(rating method)은 ‘매우 그렇다’를 1로, ‘전혀 아니다’를 5로 처리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Version 10.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에 의해 분석되었는데 분석과정은 연구목적 및 방향에 따라 조사표본의 인구통계학적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집단간 차이 검증을 위하여 두 집단의 경우에는 T-검증, 세

집단 이상인 경우에는 F검증을 실시함으로써 관광영향 변수와 지역주민의 이해관련 집단간 인식차, 지역주민의 이해관련 특성 및 관광영향의 인식정도에 대한 향후 관광개발 인식차이 등 집단들간의 평균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설문 구성은 관광영향에 관한 인식 17문항, 관광개발에 대한 인식 4문항과 인구 통계적인 사항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I-2> 설문지 구성

변수명		문항번호		문항수	사용척도
		긍정적	부정적		
관광의영향	경제적	1. 2.	3.	3	등간 척도
	지역발전적	4. 6.	5.	3	
	사회적	7. 8.	9. 10. 11.	5	
	문화적	12. 13.	14.	3	
	환경적	15.	16. 17.	3	
관광개발 인식항목		18. 19. 20. 21.		4	
인구통계적사항		1. 2. 3. 4. 5. 6. 7. 8. 9.		9	명목 척도

제 IV 장 연구결과의 분석 및 토론

제 1 절 표본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관광지 주민을 대상으로 3개 생활권(구시가지, 신시가지, 중문)으로 나누어 전지역에 걸쳐 조사대상을 추출하였으며,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 가운데 유효표본 291개의 응답자에 대한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IV-1>과 같다.

우선 성별로는 남성이 154명으로 전체 조사 인원의 52.9%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47.1%인 137명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많은 30.6%로 89명, 40대는 28.5%인 83명, 20대는 18.6%인 54명, 50대는 15.5%인 45명, 60대 이상은 전체의 6.9%인 20명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학재학이상 대학졸업 이하가 전체의 49.5%인 144명, 고졸 이하가 37.8%인 110명, 중졸 이하가 9.6%인 28명, 대학원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전체의 3.1%인 8명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자영업과 공무원이 각각 24.1%인 70명씩으로 나타났고, 회사원이 57명으로 전체의 19.6%, 농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전체의 16.5%인 48명으로 조사되었다.

거주기간별로는 3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126명으로 전체의 43.3%로 가장 많았고, 2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27.5%인 80명,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전체의 15.8%인 46명, 그리고 10년 미만을 거주한 사람도 전체의 13.4%인 39명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구시가지권이 195명으로 전체의 67%, 신시가지권과 중문권이 각각 전체의 16.5%인 48명으로 나타났다.

월수입으로는 200만원 미만인 사람들이 전체의 52.9%인 154명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미만인 사람이 전체의 22.7%인 66명, 300만원 미만인 사람이 전체의 19.9%인 58명, 3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전체의 4.5%인 13명으로 나타났다.

<표 IV-1> 표본의 구성과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154	52.9	직업	농업, 어업	48	16.5	
	여	137	47.1		자영업	70	24.1	
	계	291	100		공무원	70	24.1	
연령	20대	54	18.6		회사원	57	19.6	
	30대	89	30.6		기타	46	15.7	
	40대	83	28.5		계	291	100	
	50대	45	15.5		거주 기간	10년 미만	39	13.4
	60대 이상	20	6.9			20년 미만	46	15.8
	계	291	100			30년 미만	80	27.5
학력	중졸 이하	28	9.6			30년 이상	126	43.3
	고졸 이하	110	37.8	계		291	100	
	대재-대졸	144	49.5	거주 지	구시가지권	195	67	
	대학원재학 이상	9	3.1		신시가지권	48	16.5	
	계	291	100		중문권	48	16.5	
계	291	100	계		291	100		
구분		빈도(명)		비율(%)				
소득	100만원 미만		66		22.7			
	200만원 미만		154		52.9			
	300만원 미만		58		19.9			
	300만원 이상		13		4.5			
	계		291		100			

제 2 절 특정척도의 평가

1. 관광영향에 대한 인식

1) 경제적 영향에 대한 인식

경제적 영향에 대한 인식에 대해 변수별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IV-2>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고용기회의 확대 등의 긍정적 영향 항목에서는 긍정적 의견(생활수준의 향상 28.6%, 고용기회의 확대 32%)이 부정적인 의견(생활수준의 향상 19.3%, 고용기회의 확대 20.9%)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소비의 증가라는 부정적 영향에 있어서는 그렇다 이상의 대답을 한 사람이 전체의 66.7%로 나타나 관광영향으로 인해서 소비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 경제적 영향에 대한 인식

구 분		빈 도(명)	비 율(%)
긍정적 영향	생활수준의 향상	전혀 아니다	6 2.1
		아니다	50 17.2
		보통이다	152 52.2
		그렇다	77 26.5
		매우 그렇다	6 2.1
		합계	291 100.0
	고용기회의 확대	전혀 아니다	5 1.7
		아니다	56 19.2
		보통이다	137 47.1
		그렇다	89 30.6
		매우 그렇다	4 1.4
		합계	291 100.0
부정적 영향	소비의 증가	전혀 아니다	1 .3
		아니다	34 11.7
		보통이다	62 21.3
		그렇다	162 55.7
		매우 그렇다	32 11.0
		합계	291 100.0

2) 지역발전적 영향에 대한 인식

지역발전적 영향에 대한 인식에 대해 변수별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IV-3>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도로확충과 지역경제의 발전이라는 긍정적 영향 항목에서는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 답변을 한 사람이 전체 유효 표본 수 291명 중에 각각 245명과 190명으로 나타나 전체의 84.2%와 65.3%를 차지해, 해당 항목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부정적 영향 요소인 관광개발로 인한 부작용 항목에 대해서는 전체 유효 표본수의 58.1%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고,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13.1%에 지나지 않아 관광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 의견이 우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3> 지역발전적 영향에 대한 인식

구 분		빈 도(명)	비 율(%)	
긍정적 영향	도로확충	전혀 아니다	3	1.0
		아니다	13	4.5
		보통이다	30	10.3
		그렇다	165	56.7
		매우 그렇다	80	27.5
		합계	291	100.0
	지역경제의 발전	전혀 아니다	2	.7
		아니다	21	7.2
		보통이다	78	26.8
		그렇다	163	56.0
		매우 그렇다	27	9.3
		합계	291	100.0
부정적 영향	관광개발로 인한 부작용 (자연경관 훼손)	전혀 아니다	13	4.5
		아니다	156	53.6
		보통이다	84	28.9
		그렇다	38	13.1
		합계	291	100.0

3)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에 대해 변수별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IV-4>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여가기회의 증대와 관광객 사고방식의 이해 증대 등의 항목에 있어서는 긍정적 의견이 부정적 의견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영향 항목중 미풍양속의 피해 관련 설문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

구 분		빈 도(명)	비 율(%)		
긍정적 영향	여가기회 증대	전혀 아니다	6	2.1	
		아니다	49	16.8	
		보통이다	79	27.1	
		그렇다	145	49.8	
		매우 그렇다	12	4.1	
		합계	291	100.0	
	관광객 사고방식의 이해 증대	전혀 아니다	2	.7	
		아니다	32	11.0	
		보통이다	92	31.6	
		그렇다	152	52.2	
		매우 그렇다	13	4.5	
		합계	291	100.0	
	부정적 영향	풍기문란 및 범죄 유발	매우 그렇다	1	.3
			그렇다	41	14.1
보통이다			92	31.6	
아니다			148	50.9	
전혀 아니다			9	3.1	
합계			291	100.0	
미풍양속의 피해		매우 그렇다	3	1.0	
		그렇다	109	37.5	
		보통이다	69	23.7	
		아니다	95	32.6	
		전혀 아니다	15	5.2	
		합계	291	100.0	
교육문제의 발생		매우 그렇다	3	1.0	
		그렇다	80	27.5	
		보통이다	87	29.9	
		아니다	102	35.1	
		전혀 아니다	19	6.5	
		합계	291	100.0	

4) 문화적 영향에 대한 인식

문화적 영향에 대한 인식에 대해 변수별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IV-5>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관광객과의 문화접촉이 용이하다는 항목과 지방문화의 발전에 관광이 기여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모두 긍정적인 의견(68.7%와 74.6%)을 제시하였고, 부정적 영향인 문화적 유산 손상 항목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 44%, 긍정적 의견 16.5%로 나타나 관광으로 인해서 문화적 유산 손상은 입지 않고 있다라는 의견을 가진 주민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문화적 영향에 대한 인식

구 분		빈 도(명)	비 율(%)	
긍정적 영향	관광객과의 접촉 용이	전혀 아니다	3	1.0
		아니다	13	4.5
		보통이다	75	25.8
		그렇다	156	53.6
		매우 그렇다	44	15.1
		합계	291	100.0
	지방문화 발전	전혀 아니다	1	.3
		아니다	12	4.1
		보통이다	61	21.0
		그렇다	176	60.5
		매우 그렇다	41	14.1
		합계	291	100.0
부정적 영향	문화적 유산손상	전혀 아니다	9	3.1
		아니다	119	40.9
		보통이다	115	39.5
		그렇다	45	15.5
		매우 그렇다	3	1.0
		합계	291	100.0

5)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인식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인식에 대해 변수별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Ⅳ-6>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시설의 증가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의견 제시가 전체의 66.6%로 나타났고, 쓰레기 오염물의 증가, 소음 및 교통체증의 발생에 대해서도 아니다 이상의 부정적 의견(72.2%와 52.9%)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관광으로 인해서 쓰레기 등 오염물의 증가와 소음 및 교통체증의 발생 이라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6>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인식

구 분		빈 도(명)	비 율(%)
긍정적 영향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 증가	전혀 아니다	4 1.4
		아니다	22 7.6
		보통이다	71 24.4
		그렇다	182 62.5
		매우 그렇다	12 4.1
		합계	291 100.0
		부정적 영향	쓰레기 등 오염물 증가
보통이다	77 26.5		
아니다	163 56.0		
전혀 아니다	18 6.2		
합계	291 100.0		
소음 및 교통체증 발생	매우 그렇다		1 .3
	그렇다		55 18.9
	보통이다		81 27.8
	아니다		129 44.3
	전혀 아니다		25 8.6
	합계		291 100.0

2. 가설검증

1) 가설 I 의 검증

(1) 성별 차이 검증

① 경제적 영향 인식에 대한 검증

경제적 영향에 대한 성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소비의 증가 항목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반면에 생활수준의 향상 항목과 고용기회의 확대 항목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경제적 영향에 대한 성별 차이

구분	항목	평균		유의확률
		남	여	
긍정적 영향	생활수준 향상	3.19	2.98	0.085
	고용기회 확대	3.10	3.11	0.894
부정적 영향	소비 증가	3.81	3.48	0.016

주) 유의확률 $p \leq 0.05$ 일 때 유의함.

② 지역발전적 영향 인식에 대한 검증

지역발전 영향에 대한 성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지역경제의 발전 촉진 항목에 대해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을 뿐 다른 항목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 지역발전 영향에 대한 성별 차이

구분	항목	평균		유의확률
		남	여	
긍정적 영향	도로확충	4.12	3.97	0.409
	지역경제 발전촉진	3.76	3.55	0.000
부정적 영향	관광개발의 부작용	2.37	2.66	0.187

주) 유의확률 $p \leq 0.05$ 일 때 유의함.

③ 사회적 영향 인식에 대한 검증

사회적 영향에 대한 성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 사회적 영향에 대한 성별 차이

구분	항목	평균		유의확률
		남	여	
긍정적 영향	여가기회 증대	3.51	3.21	0.054
	관광객 사고방식의 이해	3.46	3.52	0.104
부정적 영향	풍기문란 등 범죄	3.52	3.31	0.089
	미풍양속 저해	3.10	2.96	0.682
	교육문제 발생	3.30	3.07	0.581

주) 유의확률 $p \leq 0.05$ 일 때 유의함.

④ 문화적 영향 인식에 대한 검증

문화적 영향에 대한 성별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 문화적 영향에 대한 성별 차이

구분	항목	평균		유의확률
		남	여	
긍정적 영향	관광객 접촉확대	3.76	3.79	0.455
	지방문화 발전	3.79	3.89	0.271
부정적 영향	문화유산 손상	2.65	2.77	0.796

주) 유의확률 $p \leq 0.05$ 일 때 유의함.

⑤ 환경적 영향 인식에 대한 검증

환경적 영향에 대한 성별 차이검증의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 환경적 영향에 대한 성별 차이

구분	항목	평균		유의확률
		남	여	
긍정적 영향	지역시설 증가	3.67	3.53	0.089
부정적 영향	쓰레기 등 오염물의 증가	3.67	3.46	0.057
	소음 및 교통체증의 증가	3.49	3.34	0.268

주) 유의확률 $p \leq 0.05$ 일 때 유의함.

(2) 연령별 차이 검증

① 경제적 영향 인식에 대한 검증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령별 차이검증 결과 긍정적 영향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의 향상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긍정적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기회의 확대에 있어서는 40대가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령별 차이

구분	항목	평균					F	유의확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긍정적 영향	생활수준 향상	2.81	2.91	3.30	3.33	3.25	6.240	0.000
	고용기회 확대	3.17	3.10	3.25	2.93	2.75	2.443	0.047
부정적 영향	소비 증가	3.48	3.62	3.63	3.82	4.00	1.964	0.100

주) 유의확률 $p \leq 0.05$ 일 때 유의함.

② 지역발전적 영향 인식에 대한 검증

지역발전적 영향에 대한 연령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든 항목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확충에 대해서는 60대 이상의 주민들이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의 발전촉진항목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긍정적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광개발로 인한 부작용 항목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해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발전적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 지역발전적 영향에 대한 연령별 차이

구분	항목	평균					F	유의확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긍정적 영향	도로확충	3.57	3.98	4.25	4.22	4.45	8.812	0.000
	지역경제 발전촉진	3.35	3.53	3.80	3.89	4.00	5.732	0.000
부정적 영향	관광개발의 부작용	2.80	2.61	2.39	2.36	2.10	4.791	0.001

주) 유의확률 $p \leq 0.05$ 일 때 유의함.

③ 사회적 영향 인식에 대한 검증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령별 차이검증 결과, 여가기회의 증대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 사고방식의 이해에서는 40대가, 풍기문란과 미풍양속의 저해, 교육문제의 발생에 대해서는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령별 차이

구분	항목	평균					F	유의확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긍정적 영향	관광객 사고방식의 이해	3.31	3.28	3.72	3.67	3.50	5.017	0.001
	여가기회의 증대	3.06	3.36	3.48	3.51	3.50	1.392	0.237
부정적 영향	풍기문란	3.33	3.40	3.39	3.44	3.80	3.599	0.007
	미풍양속의 저해	2.70	3.02	3.01	3.29	3.50	4.478	0.002
	교육문제의 발생	2.90	3.15	3.11	3.49	3.75	2.497	0.043

주) 유의확률 $p \leq 0.05$ 일 때 유의함.

④ 문화적 영향 인식에 대한 검증

문화적 영향에 대한 연령별 차이검증 결과,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 문화적 영향에 대한 연령별 차이

구분	항목	평균					F	유의확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긍정적 영향	관광객접촉 증가	3.74	3.75	3.78	3.80	3.85	0.099	0.983
	지방문화의 발전	3.67	3.82	3.94	3.93	3.75	1.463	0.213
부정적 영향	문화유산 손상	2.78	2.83	2.60	2.60	2.60	1.287	0.275

주) 유의확률 $p \leq 0.05$ 일 때 유의함.

⑤ 환경적 영향 인식에 대한 검증

환경적 영향에 대한 연령별 차이검증 결과,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 환경적 영향에 대한 연령별 차이

구분	항목	평균					F	유의확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긍정적 영향	지역시설 증가	3.43	3.57	3.66	3.66	3.85	1.569	0.183
부정적 영향	오염물의 증가	3.43	3.66	3.58	3.40	3.90	2.288	0.060
	교통체증의 증가	3.31	3.46	3.30	3.53	3.75	1.439	0.221

주) 유의확률 $p \leq 0.05$ 일 때 유의함.

(3) 거주지별 차이 검증

① 경제적 영향 인식에 대한 검증

경제적 영향에 대한 거주지별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고용기회의 확대와 소비의 증가 항목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기회의 확대에 있어서는 신시가지권에서, 소비의 증가 항목에 대해서는 중문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가장 강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7> 경제적 영향에 대한 거주지별 차이

구분	항목	평균			F	유의확률
		구시가지권	신시가지권	중문권		
긍정적 영향	생활수준 향상	3.08	3.13	3.13	0.124	0.883
	고용기회 확대	3.03	3.31	3.23	3.345	0.037
부정적 영향	소비 증가	3.69	3.38	3.77	3.389	0.035

주) 유의확률 $p \leq 0.05$ 일 때 유의함.

② 지역발전적 영향 인식에 대한 검증

지역발전적 영향에 대한 거주지별 차이검증 결과, 지역경제의 발전촉진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문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8> 지역발전적 영향에 대한 거주지별 차이

구분	항목	평균			F	유의확률
		구시가지권	신시가지권	중문권		
긍정적 영향	도로확충	4.06	3.90	4.17	1.406	0.247
	지역경제 발전촉진	3.67	3.48	3.79	3.241	0.041
부정적 영향	관광개발의 부작용	2.48	2.75	2.38	2.047	0.131

주) 유의확률 $p \leq 0.05$ 일 때 유의함.

③ 사회적 영향 인식에 대한 검증

사회적 영향에 대한 거주지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 부정적 영향 항목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기문란 항목인 경우 구시가지권에서, 미풍양속 저해 항목인 경우 중문권에서, 교육문제 발생 항목인 경우 신시가지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9> 사회적 영향에 대한 거주지별 차이

구분	항목	평균			F	유의확률
		구시가지권	신시가지권	중문권		
긍정적 영향	관광객 사고방식의 이해	3.47	3.35	3.71	2.754	0.065
	여가기회의 증대	3.43	3.19	3.33	1.459	0.234
부정적 영향	풍기문란	3.50	3.17	3.35	3.856	0.022
	미풍양속의 저해	3.09	2.69	3.15	3.766	0.024
	교육문제의 발생	3.28	3.89	3.08	3.603	0.028

주) 유의확률 $p \leq 0.05$ 일 때 유의함.

④ 문화적 영향 인식에 대한 검증

문화적 영향에 대한 거주지별 차이검증에 대해서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0> 문화적 영향에 대한 거주지별 차이

구분	항목	평균			F	유의확률
		구시가지권	신시가지권	중문권		
긍정적 영향	관광객접촉 증가	3.79	3.73	3.73	0.219	0.804
	지방문화의 발전	3.87	3.73	3.83	0.697	0.499
부정적 영향	문화유산 손상	2.68	2.81	2.71	0.549	0.578

주) 유의확률 $p \leq 0.05$ 일 때 유의함.

⑤ 환경적 영향 인식에 대한 검증

환경적 영향에 대한 거주지별 차이검증 결과 소음 및 교통체증의 증가 항목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다른 항목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 및 교통체증의 증가 항목에서는 구시가지권이 중문권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고 신시가지권은 가장 낮게 나타남으로써 구시가지권과 중문권 주민들이 교통체증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21> 환경적 영향에 대한 거주지별 차이

구분	항목	평균			F	유의확률
		구시가지	신시가지	중문권		
긍정적 영향	지역시설 증가	3.62	3.58	3.56	0.139	0.870
부정적 영향	오염물의 증가	3.56	3.42	3.75	2.271	0.105
	교통체증의 증가	3.48	3.12	3.46	3.104	0.046

주) 유의확률 $p \leq 0.05$ 일 때 유의함.

(4) 관광관련 직업유무별 차이 검증

① 경제적 영향 인식에 대한 검증

경제적 영향에 대한 관광관련 직업의 유무별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긍정적 영향 항목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반면에 부정적 영향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의 향상 항목과 고용기회의 확대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관광과 관련이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관련이 없는 주민들은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 경제적 영향에 대한 관광관련 직업 유무별 차이

구분	항목	평균		유의확률
		있다	없다	
긍정적 영향	생활수준 향상	3.16	2.94	0.029
	고용기회 확대	3.17	2.95	0.029
부정적 영향	소비 증가	3.60	3.78	0.079

주) 유의확률 $p \leq 0.05$ 일 때 유의함.

② 지역발전적 영향 인식에 대한 검증

지역발전적 영향에 대한 관광관련 직업의 유무별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든 항목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 지역발전적 영향에 대한 관광관련 직업의 유무별 차이

구분	항목	평균		유의확률
		있다	없다	
긍정적 영향	도로확충	4.07	4.01	0.576
	지역경제 활성화	3.69	3.59	0.465
부정적 영향	관광개발의 부작용	2.52	2.45	0.318

주) 유의확률 $p \leq 0.05$ 일 때 유의함.

③ 사회적 영향 인식에 대한 검증

사회적 영향에 대한 관광관련 직업의 유무별 차이검증 결과, 관광객 사고방식의 이해와 미풍양속의 저해, 교육문제의 발생 항목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 사고방식의 이해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강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영향 항목인 미풍양속의 저해, 교육문제의 발생에서는 관련이 없는 주민들이 부정적으로 강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4> 사회적 영향에 대한 관광관련 직업의 유무별 차이

구분	항목	평균		유의확률
		있다	없다	
긍정적 영향	관광객 사고방식의 이해	3.55	3.35	0.049
	여가기회의 증대	3.36	3.39	0.847
부정적 영향	풍기문란	3.36	3.56	0.054
	미풍양속의 저해	2.91	3.30	0.002
	교육문제의 발생	3.06	3.47	0.001

주) 유의확률 $p \leq 0.05$ 일 때 유의함.

④ 문화적 영향 인식에 대한 검증

문화적 영향에 대한 관광관련 직업의 유무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든 항목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5> 문화적 영향에 대한 관광관련 직업의 유무별 차이

구분	항목	평균		유의확률
		있다	없다	
긍정적 영향	관광객접촉 증가	3.82	3.66	0.107
	지방문화의 발전	3.87	3.77	0.308
부정적 영향	문화유산 손상	2.67	2.77	0.340

주) 유의확률 $p \leq 0.05$ 일 때 유의함.

⑤ 환경적 영향 인식에 대한 검증

환경적 영향에 대한 관광관련 직업의 유무별 차이검증 결과, 소음 및 교통체증의 증가 항목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광관련 직업과 관련없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표 IV-26> 환경적 영향에 대한 관광관련 직업의 유무별 차이

구분	항목	평균		유의확률
		있다	없다	
긍정적 영향	지역시설 증가	3.63	3.56	0.471
부정적 영향	오염물의 증가	3.52	3.68	0.106
	교통체증의 증가	3.35	3.58	0.046

주) 유의확률 $p \leq 0.05$ 일 때 유의함.

(5) 관광객과의 접촉정도별 차이 검증

① 경제적 영향 인식에 대한 검증

경제적 영향에 대한 관광객과의 접촉정도별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대한 항목과 소비의 증가에 대한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의 향상에서는 관광객과의 접촉이 적다는 응답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의 증가에 대해서는 관광객과의 접촉이 거의 없는 주민들이 소비의 증가에 대하여 강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7> 경제적 영향에 대한 관광객과의 접촉별 차이

구분	항목	평균				F	유의확률
		많음	보통	적음	거의 없음		
긍정적 영향	생활수준 향상	3.10	3.19	3.22	2.93	2.646	0.049
	고용기회 확대	3.16	3.10	3.25	2.97	2.067	0.105
부정적 영향	소비 증가	3.30	3.54	3.61	3.90	6.716	0.000

주) 유의확률 $p \leq 0.05$ 일 때 유의함.

② 지역발전 영향 인식에 대한 검증

지역발전적 영향에 대한 관광객과의 접촉정도별 차이검증결과, 지역경제의 발전촉진 항목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광객과의 접촉정도가 적을수록 더욱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8> 지역발전적 영향에 대한 관광객과의 접촉정도별 차이

구분	항목	평균				F	유의확률
		많음	보통	적음	거의 없음		
긍정적 영향	도로확충	3.92	3.92	4.13	4.11	1.369	0.252
	지역경제 발전촉진	3.53	3.65	3.66	3.72	3.399	0.018
부정적 영향	관광개발의 부작용	2.76	2.54	2.54	2.34	0.695	0.556

주) 유의확률 $p \leq 0.05$ 일 때 유의함.

③ 사회적 영향 인식에 대한 검증

사회적 영향에 대한 관광객과의 접촉정도별 차이검증 결과, 모든 항목

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긍정적 영향인 관광객 사고 방식의 이해와 관련해서는 접촉이 많을수록, 여가기회의 증대와 관련해서는 접촉이 거의 없을수록 긍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접촉이 없을수록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풍기문란에 대해서는 구시가지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미풍양속의 저해에 대해서는 중문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교육문제의 발생에 대해서는 신시가지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더욱 강한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9> 사회적 영향에 대한 관광객과의 접촉정도별 차이

구분	항목	평균				F	유의확률
		많음	보통	적음	거의 없음		
긍정적 영향	관광객 사고방식의 이해	3.73	3.58	3.36	3.43	2.851	0.038
	여가기회의 증대	2.98	3.44	3.42	3.48	4.046	0.008
부정적 영향	풍기문란	3.10	3.19	3.54	3.59	6.924	0.000
	미풍양속의 저해	2.63	2.73	3.05	3.36	9.115	0.000
	교육문제의 발생	2.76	2.94	3.18	3.51	9.511	0.000

주) 유의확률 $p \leq 0.05$ 일 때 유의함.

④ 문화적 영향 인식에 대한 검증

문화적 영향에 대한 관광객과의 접촉정도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0> 문화적 영향에 대한 관광객과의 접촉정도별 차이

구분	항목	평균				F	유의확률
		많음	보통	적음	거의 없음		
긍정적 영향	관광객접촉 증가	3.84	3.83	3.78	3.71	0.374	0.772
	지방문화의 발전	3.96	3.67	3.86	3.85	1.398	0.244
부정적 영향	문화유산 손상	2.84	2.71	2.55	2.76	1.647	0.179

주) 유의확률 $p \leq 0.05$ 일 때 유의함.

⑤ 환경적 영향 인식에 대한 검증

환경적 영향에 대한 접촉정도별 차이검증의 결과, 모든 항목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영향

인 지역시설 증가와 관련해서는 접촉정도가 보통일 때 긍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부정적 영향인 오염물의 증가와 교통체증의 증가와 관련해서는 접촉정도가 적을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1> 환경적 영향에 대한 접촉정도별 차이

구분	항목	평균				F	유의확률
		많음	보통	적음	거의 없음		
긍정적 영향	지역시설 증가	3.27	3.73	3.62	3.69	4.456	0.004
부정적 영향	오염물의 증가	3.27	3.42	3.68	3.70	4.868	0.003
	교통체증의 증가	3.14	3.29	3.41	3.62	3.704	0.012

주) 유의확률 $p \leq 0.05$ 일 때 유의함.

2) 가설Ⅱ의 검증

(1) 가설Ⅱ-1의 검증

“관광지 주민의 연령에 따라 관광개발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에 대한 검증 결과, 관광객 유입보다 환경보호 및 기타 문제에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항목과 지역 관광개발을 위한 지방세 부담에 찬성한다에 대한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이외의 다른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2> 연령별 관광개발 인식에 대한 차이검증

내용	구분	평균	F값	유의확률(p값)
지역발전을 위해 추가적인 관광개발에 찬성한다	20대	3.8519	2.010	0.093
	30대	3.9551		
	40대	4.1687		
	50대	4.0222		
	60대 이상	4.3000		
	평균	4.0309		
관광객 유입보다 환경보호 및 기타 문제에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20대	4.0556	2.661	0.033
	30대	4.0000		
	40대	3.6747		
	50대	4.0889		
	60대 이상	4.2000		
	평균	3.9450		

(표 계속)

지역 관광개발을 위한 지방세 부담에 찬성한다	20대	2.6852	3.472	0.009
	30대	3.0449		
	40대	3.2892		
	50대	3.2444		
	60대 이상	3.0500		
	평균	3.0790		
관광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관광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20대	3.7593	0.657	0.622
	30대	3.7191		
	40대	3.7711		
	50대	3.8889		
	60대 이상	4.0000		
	평균	3.7869		

주) 유의확률 $p \leq 0.05$ 일 때 유의함.

관광객의 유입보다 환경보호 등의 문제에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40대가 가장 낮았으며, 20대, 30대, 50대 등에서는 평균 점수가 4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 높게 점수가 형성 되었다.

지역관광개발을 위한 지방세부담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약간 우세하였으나 반대의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에서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설Ⅱ-2의 검증

“관광지 주민의 학력별로 관광개발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에 대한 검증 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추가적인 관광개발에 찬성한다는 항목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발전을 위해 추가적인 관광개발에 찬성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모든 층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특히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점수는 다소 낮게 형성되었다.

<표 IV-33> 학력별 관광개발 인식에 대한 차이검증

내용	구분	평균	F값	유의확률(p값)
지역발전을 위해 추가적인 관광개발에 찬성한다	중졸 이하	4.2500	3.797	0.011
	고졸 이하	4.1818		
	대재 및 대졸	3.8750		
	대학원 재학 이상	3.8168		
	평균	4.0309		
관광객 유입보다 환경 보호 및 기타 문제에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중졸 이하	4.1786	1.572	0.196
	고졸 이하	3.9727		
	대재 및 대졸	3.8542		
	대학원 재학 이상	4.3333		
	평균	3.9450		
지역 관광개발을 위한 지방세 부담에 찬성한다	중졸 이하	3.0714	2.114	0.099
	고졸 이하	3.2091		
	대재 및 대졸	2.9514		
	대학원 재학 이상	3.5556		
	평균	3.0790		
관광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관광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중졸 이하	3.8571	2.261	0.081
	고졸 이하	3.8818		
	대재 및 대졸	3.6736		
	대학원 재학 이상	4.2222		
	평균	3.7869		

주) 유의확률 $p \leq 0.05$ 일 때 유의함.

(3) 가설 II-3의 검증

“관광지 주민의 직업에 따라 관광개발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에 대한 검증 결과, 추가적인 관광개발에 찬성한다는 항목과 지역 관광개발을 위한 지방세 부담에 찬성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발전을 위해 추가적인 관광개발에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자영업자가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그 다음이 농업과 어업, 공무원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경우 추가적인 관광개발이 지역발전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관광개발을 위한 지방세 부담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농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미미하다.

<표 IV-34> 직업별 관광개발 인식에 대한 차이검증

내용	구분	평균	F값	유의확률(p값)
지역발전을 위해 추가적인 관광개발에 찬성한다	농업, 어업	4.1458	6.489	0.000
	자영업	4.3000		
	공무원	4.0857		
	회사원	3.8947		
	기타	3.5870		
	평균	4.0309		
관광객 유입보다 환경보호 및 기타 문제에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농업, 어업	4.2292	1.993	0.096
	자영업	4.0429		
	공무원	3.8286		
	회사원	3.8246		
	기타	3.8261		
	평균	3.9450		
지역 관광개발을 위한 지방세 부담에 찬성한다	농업, 어업	3.2083	2.873	0.023
	자영업	3.1714		
	공무원	3.2143		
	회사원	3.0351		
	기타	2.6522		
	평균	3.0790		
관광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도 관광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농업, 어업	3.7500	1.062	0.376
	자영업	3.8000		
	공무원	3.9429		
	회사원	3.6491		
	기타	3.7391		
	평균	3.7869		

주) 유의확률 $p \leq 0.05$ 일 때 유의함.

(4) 가설 II-4의 검증

“관광지 주민의 거주기간에 따라 관광개발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에 대한 검증 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추가적인 관광개발에 찬성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거주기간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발전을 위해 추가적인 관광개발에 찬성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모든 층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년 미만과 3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이 더욱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5> 거주기간별 관광개발 인식에 대한 차이검증

내용	구분	평균	F값	유의확률(p값)
지역발전을 위해 추가적인 관광개발에 찬성한다	10년 미만	3.7692	2.877	0.036
	20년 미만	4.2174		
	30년 미만	3.9375		
	30년 이상	4.1032		
	평균	4.0309		
관광객 유입보다 환경보호 및 기타 문제에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10년 미만	3.8974	0.236	0.871
	20년 미만	3.8696		
	30년 미만	3.9375		
	30년 이상	3.9921		
	평균	3.9450		
지역 관광개발을 위한 지방세 부담에 찬성한다	10년 미만	2.8718	1.844	0.139
	20년 미만	3.1957		
	30년 미만	2.9375		
	30년 이상	3.1905		
	평균	3.0790		
관광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관광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10년 미만	3.6154	0.667	0.573
	20년 미만	3.8261		
	30년 미만	3.7875		
	30년 이상	3.8254		
	평균	3.7869		

주) 유의확률 $p \leq 0.05$ 일 때 유의함.

(5) 가설Ⅱ-5의 검증

“관광지 주민의 거주지에 따라 관광개발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에 대한 검증 결과, 관광객 유입보다 환경보호 및 기타 문제에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에 있어서 환경보호 등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모든 지역 거주 주민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시가지권, 중문권, 신시가지권에 거주하는 주민들 순서로 강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6> 거주지별 관광개발 인식에 대한 차이검증

내용	구분	평균	F값	유의확률(p값)
지역발전을 위해 추가적인 관광개발에 찬성한다	구시가지권	4.0667	1.355	0.260
	신시가지권	4.0625		
	중문권	3.8542		
	평균	4.0309		
관광객 유입보다 환경보호 및 기타 문제에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구시가지권	4.1077	10.831	0.000
	신시가지권	3.4583		
	중문권	3.7708		
	평균	3.9450		
지역 관광개발을 위한 지방세 부담에 찬성한다	구시가지권	3.1128	1.223	0.296
	신시가지권	2.8750		
	중문권	3.1458		
	평균	3.0790		
관광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관광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구시가지권	3.8051	0.406	0.667
	신시가지권	3.6875		
	중문권	3.8125		
	평균	3.7869		

주) 유의확률 $p \leq 0.05$ 일 때 유의함.

(6) 가설Ⅱ-6의 검증

“관광지 주민의 소득에 따라 관광개발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에 대한 검증 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추가적인 관광개발에 찬성한다는 항목과 지역 관광개발을 위한 지방세 부담에 찬성한다는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서 소득별로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모든 소득층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만원에서 300만원대의 수입을 가진 주민들의 점수는 다른 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관광개발을 위한 지방세 부담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만원에서 300만원대의 소득을 가진 주민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소득층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7> 소득별 관광개발 인식에 대한 차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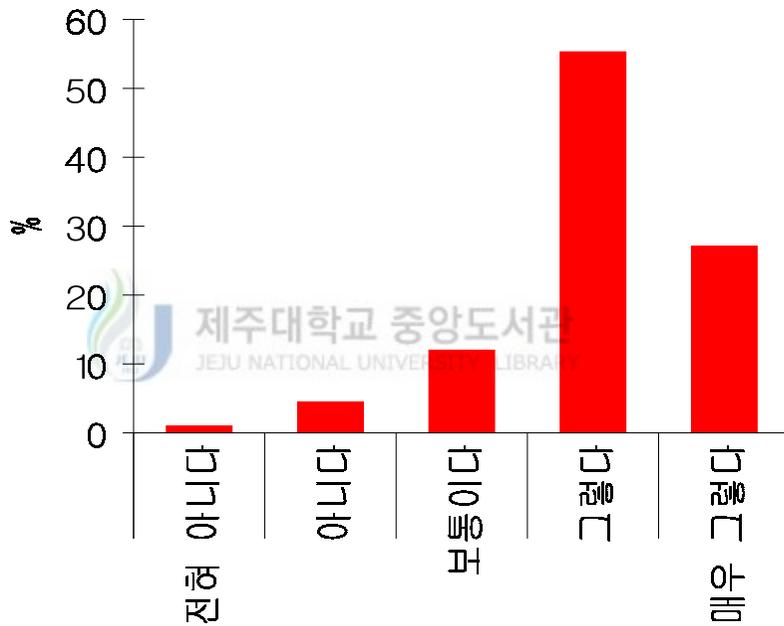
내용	구분	평균	F값	유의확률(p값)
지역발전을 위해 추가적인 관광개발에 찬성한다	100만원 미만	3.7273	7.936	0.000
	200만원 미만	4.0455		
	300만원 미만	4.3966		
	300만원 이상	3.7692		
	평균	4.0309		
관광객 유입보다 환경보호 및 기타 문제에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100만원 미만	3.7424	1.699	0.167
	200만원 미만	3.9805		
	300만원 미만	4.1034		
	300만원 이상	3.8462		
	평균	3.9450		
지역 관광개발을 위한 지방세 부담에 찬성한다	100만원 미만	2.6515	11.925	0.000
	200만원 미만	3.0649		
	300만원 미만	3.6552		
	300만원 이상	2.8462		
	평균	3.0790		
관광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관광개발 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100만원 미만	3.6818	1.652	0.178
	200만원 미만	3.7468		
	300만원 미만	3.9828		
	300만원 이상	3.9231		
	평균	3.7869		

주) 유의확률 $p \leq 0.05$ 일 때 유의함.

3. 추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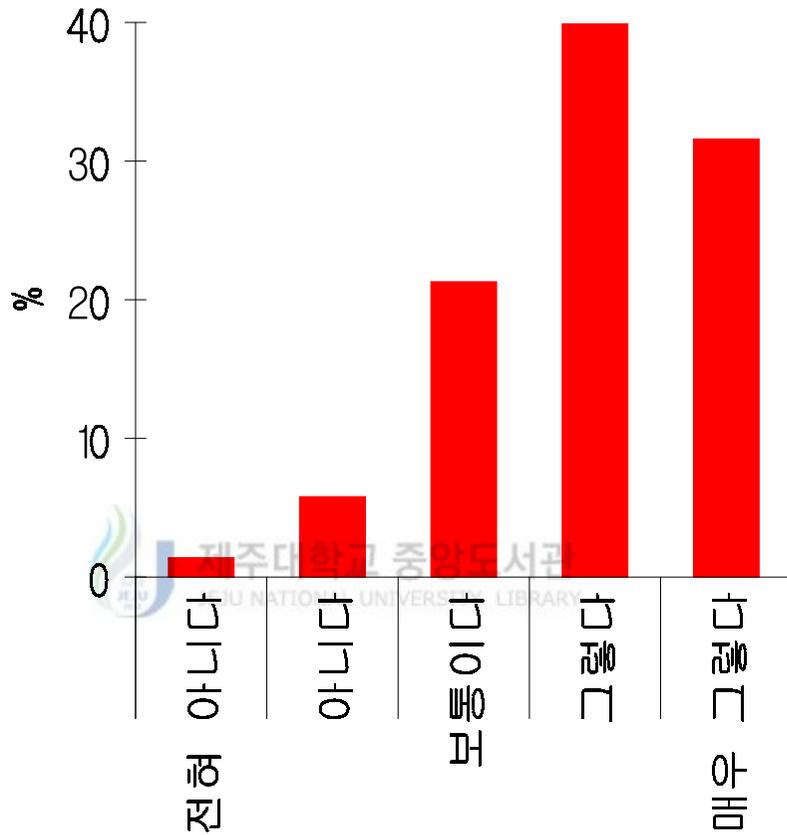
관광개발 인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추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IV-1> 추가적인 관광개발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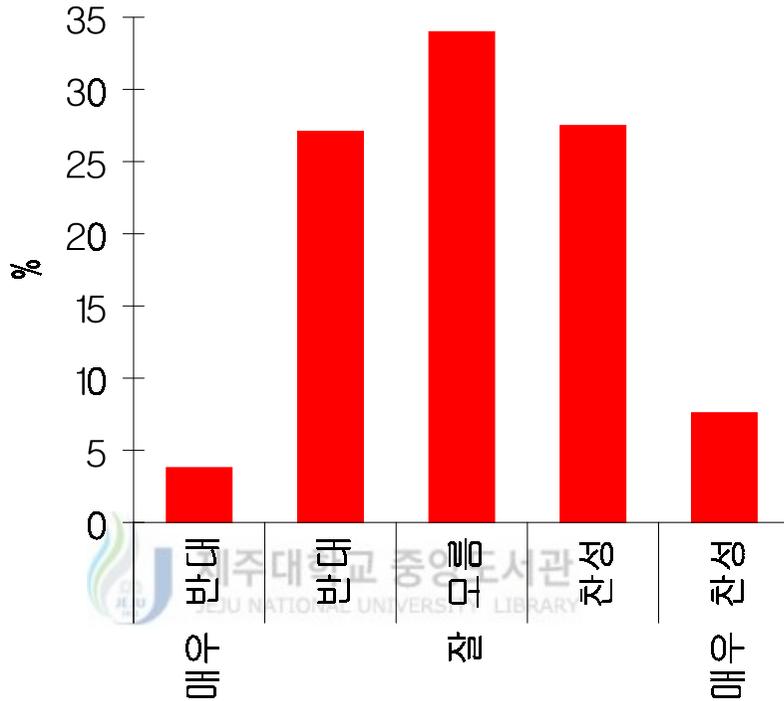
첫째, ‘지역발전을 위해 추가적인 관광개발에 찬성한다’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 의견을 가진 사람이 전체 291명 중의 82.4%인 240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주민들이 추가적인 관광개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 환경보호에 대한 우선순위 재정지출에 대한 의견



둘째, ‘관광객 유입보다 환경보호 및 기타 문제에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뒤야 한다’는 물음에 대해서는 전체의 71.5%인 208명으로 나타나 관광객의 양보다는 환경보호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 관광개발을 위한 지방세 부담에 대한 의견



셋째 항목인 ‘관광개발을 위한 지방세 부담에 대하여 찬성한다’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견 35.1%, 부정적 의견 30.9%으로 나타나 찬성하는 측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관광개발을 위한 지방세 부담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다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절 분석결과의 요약

서귀포지역 관광지 주민들의 관광영향 인식에 대해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생활수준의 향상과 고용기회 확대등 영향 항목에서는 긍정적 의견이 부정적 의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영향 항목인 소비의 증가에서는 그렇다 이상의 대답을 한 경우가 66.7%로 조사됨으로써 관광영향에 따른 소비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발전적 영향에 대해서 도로확충·개선과 지역경제의 발전 촉진등의 긍정적 영향 항목에서는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 답변을 한 경우가 전체의 84.2%와 65.3%로 나타나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관광개발로 인한 부작용(자연경관 훼손)등 부정적 영향 항목에 있어서도 58.1%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함으로써 관광개발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 영향 항목인 여가기회 증대와 관광객 사고방식의 이해 증대관련 설문 결과 관광으로 인하여 여가기회가 증가했고 관광객의 사고방식 이해를 돕는데 기여한 걸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정적 영향 항목 중에서 전통 미풍양속의 저해관련 설문에서는 다소 부정적이었으나, 풍기문란 및 범죄유발, 교육문제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영향에 대해서 관광객과의 문화 접촉이 용이하다 항목과 지방문화의 발전에 관광이 기여한다는 항목인 경우 모두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적 유산 손상 항목 역시 부정적 의견이 44%, 긍정적 의견이 16.5%로 나타남으로써 관광으로 인해 문화적 유산 손상은 입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시설의 증가 항목에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쓰레기등 오염물 증가 및 소음·교통체증 발생 항목 역시 부정적 의견(72.2%와 52.9%)이 우세

한 것으로 나타나 서귀포지역 주민들은 부정적 영향에 대해 평소 우려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I> “관광지 주민의 특성에 따라 관광영향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첫째, 성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적 영향인 경우 소비의 증가 항목에서 남자가 강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발전적 영향인 경우 지역경제의 발전 촉진 항목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사회적 영향과 문화적 영향, 환경적 영향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적 영향인 경우 생활수준의 향상 항목은 연령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고용기회의 확대에서는 40대가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발전적 영향인 경우 도로확충 항목에서는 60대 이상이 가장 긍정적이었고 지역경제의 발전촉진 항목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관광개발에 따른 부작용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긍정적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영향인 경우 관광객 사고방식의 이해에서는 40대가, 50대가, 풍기문란과 미풍양속의 저해, 교육문제의 발생에 대해서는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적 영향과 환경적 영향인 경우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거주지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적 영향인 경우 고용기회의 확대 항목은 신시가지권에서, 소비의 증가 항목에 대해서는 중문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가장 강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발전적 영향인 경우 지역경제의 발전 촉진 항목에서 중문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영향인 경우 부정적 영향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풍기문란 항목은 구시가지권에서, 미풍양속 저해 항목은 중문권에서, 교육문제 발생 항목은 신시가지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부정적으로 강한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영향인 경우 모든 항목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적 영향인 경우 교통체증 증가에 대해서는 구시가지권, 중문권, 신시가지권 순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걸로 나타났다.

넷째, 관광관련 직업의 유무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적 영향인 경우 긍정적 영향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고용기회의 확대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관광과 관련이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발전적 영향인 경우 모든 항목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영향인 경우 관광객 사고방식의 이해 항목에서는 관련있는 주민들이, 미풍양속의 저해 및 교육문제의 발생 항목에서는 관련 없는 주민들이 강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적 영향인 경우 모든 항목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적 영향인 경우 소음 및 교통체증의 증가 항목에서는 관련없다고 응답한 주민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관광객과의 접촉정도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적 영향인 경우 생활수준의 향상 항목에서는 관광객과의 접촉정도가 적을수록, 소비 증가 항목에서는 관광객과의 접촉이 거의 없는 주민들이 강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발전적 영향인 경우 지역경제의 발전 촉진 항목에서 관광객과의 접촉이 거의 없는 주민들이 더욱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영향인 경우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관광객 사고방식의 이해와 관련해서는 접촉 정도가 많을수록, 여가 기회의 증대 항목에서는 접촉이 거의 없을수록 강한 긍정적 인식을 나타냈으며, 풍기문란에 대해서는 구시가지권 주민들이, 미풍양속 저해에 대해서는 중문권 주민들이, 교육문제의 발생에 대해서는 신시가지권 거주 주민들이 더욱 강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영향인 경우에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적 영향인 경우 지역시설의 증가 항목에서는 접촉정도가 보통정도일 때 긍정적인 인식이 다소 높았으며, 오염물의 증가 항목과 교통체증의 증가 항목에서는 접촉정도가 거의 없을수록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Ⅱ> “관광지 주민의 특성에 따라 관광 개발에 대한 관광영향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Ⅱ-1, “관광지 주민의 연령에 따라 관광개발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에 대한 검증 결과, 관광객 유입보다 환경보호 및 기타 문제에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항목과 지역 관광개발을 위한 지방세 부담에 찬성한다는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Ⅱ-2, “관광지 주민의 학력별로 관광개발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에 대한 검증 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추가적인 관광개발에 찬성한다는 항목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Ⅱ-3, “관광지 주민의 직업에 따라 관광개발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에 대한 검증 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추가적인 관광개발에 찬성한다는 항목과 지역 관광개발을 위한 지방세 부담에 찬성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Ⅱ-4, “관광지 주민의 거주기간에 따라 관광개발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에 대한 검증 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추가적인 관광개발에 찬성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거주기간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Ⅱ-5, “관광지 주민의 거주지에 따라 관광개발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에 대한 검증 결과, 관광객 유입보다 환경보호 및 기타 문제에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Ⅱ-6, “관광지 주민의 소득에 따라 관광개발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에 대한 검증 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추가적인 관광개발에 찬성한다는 항목과 지역 관광개발을 위한 지방세 부담에 찬성한다는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서 소득별로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개발 인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발전을 위해 추가적인 관광개발에 찬성한다’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 의견을 가진 사람이 전체 291명 중의 82.4%인 240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주민들이 추가적인 관광개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광객 유입보다 환경보호 및 기타 문제에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뒤야 한다’는 물음에 대해서는 전체의 71.5%인 208명으로 나타나 관광객의 양보다는 환경보호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관광개발을 위한 지방세 부담에 대하여 찬성한다’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35.1%, 부정적인 의견이 30.9%로 제시함으로써 찬성하는 측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관광개발을 위한 지방세 부담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다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발전을 위해 추가적인 관광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했으며,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관광객 수의 증대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여 관광개발을 위한 재정지출시 환경적인 측면에 많은 지출을 해야 한다는 등의 환경친화적 개발을 주문했다.

하지만 관광개발을 위한 지방세 부담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그다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광개발을 시행하는 것을 반기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결국 본 연구의 목적인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진흥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관광지주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분석결과는 우선 지역발전을 위해서 추가적인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재정지출시 환경적인 측면에 지출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 지역주민들은 관광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관광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역관광개발을 위한 지방세부담에 대해서는 다소 미온적이라는 점 등은 향후 서귀포시의 관광개발계획 수립과 관광진흥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인식이라는 점을 숙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 V 장 결 론

제 1 절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서귀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즉 관광지가 주변에 많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지 주민이 느끼는 관광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아울러 관광지 주민의 관광과의 관련성 여부에 따른 인식의 차이와 관광지 주민의 관광에 대한 인식이 관광개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2차 적인 목적으로 삼았다.

그 결과 관광지 주민이 느끼는 관광에 대한 인식은 과거의 연구들에서 주를 이루었던 부정적 시각이 이번 조사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조사의 연구대상지와 연구기간, 변수의 설정 등에 따른 차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관광개발이 수십년부터 이루어져 오고, 또한 관광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과거 개발단계에서 보여왔던 부정적 의견이 이제는 자신들의 생계수단과 맞물려 있고, 또한 관광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다는 데서 온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관광지 주민의 관광개발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역시 위의 관광영향에 대한 인식의 결과들을 반영하여 주듯이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발전을 위해 추가적인 관광개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82.4%를 차지하였다는 것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양적인 관광의 발전보다는 환경보호를 전제로 하는 관광개발을 주문함으로서 소위 말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환경친화적인 관광개발’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과거 관광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느끼던 관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고, 이는 추가적인 관광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루어 관광지 주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과거의 양적 팽창 위주의 관광개발이 아닌, 환경을 보호하는 지속가능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관광개발을 할 때만이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고, 추가적인 관광개발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관광개발을 위한 지방세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나, 관광개발을 시행할 시에는 지방정부에서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개발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간의 대립을 막을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라고 하겠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어디까지나 관광자원이 주변에 산재해 있는 서귀포시 지역 관광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관광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과 또한 서귀포시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관광개발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타 지역의 관광지 주민이 느끼는 관광영향에 대한 인식을 대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귀포시 이외의 제주지역에서도 어떠한 결과가 나올 지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가 없다. 또한 일정한 시점에서 조사됨으로써 과거 현재 미래를 대표하는 인식이라고 볼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귀포라는 지역에 거주하는 관광지 주민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관광지 주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관광지 주민간 비교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관광개발이 이루어진 규모에 따라서 주민들간의 비교를 할 수 있음으로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향후 관광개발에 활용함으로써 과거 관광개발시 반복되어왔던 지역주민의 반대와 개발업자의 무차별한 개발이 아닌, 지역주민과 개발업자들의 협의와 합의를 통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관광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1. 國內文獻

1) 서적

- 김사헌, 「신관광경제학」, (서울 일신사, 1997)
김충호, 「관광사업경영」, (서울 기문사, 1989)
김태영, 「현대관광학개론」, (서울 백산출판사, 1993)
박석희, 「신관광자원론」, (서울 일신사, 1994)
일본관광협회, 관광계획의 수법, 1976.
————— 관광·지구조사 연구Ⅱ, 1984.
한국관광공사, 국민의 여가 생활과 관광산업, 1985.



2) 논문

- 김기동, “관광영향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변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1998.
김병문, “관광개발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 관광학 연구, 한국관광학회 제12호, 1988.
김석순, “제주지역 청소년의 관광영향인식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1997.
김영양, “관광지화가 주변 농촌지역과 주민의식에 미친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1.
김월호, “관광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의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1989.
고동완, “지역주민의 지각된 관광영향과 지역사회에 대한 태도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1993.

- 박용재, “기초자치단체의 관광지관리가 방문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1999.
- 반진호, “관광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1991.
- 신현주, “관광산업 발전의 그 지역 주민생활에 미치는 사회 문화적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협회, 1987.
- 심상도, “관광현상이 원주민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1986.
- 이미혜, “관광의 지역경제적 편익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1993.
- 이 숙, “관광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연구 : 이태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1991.
- 이유관, “관광산업이 사회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1989.
- 조배행, “관광영향에 대한 경주지역주민 태도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1986
- 장성수, “관광지주민이 지각하는 관광영향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1995.
- 전경수, “제주도의 관광개발과 지역문화 보전을 위한 제언”, 제주도 연구, 제2집, 제주도연구회, 1985.
- 허향진외, “제주 관광산업의 실태와 발전 방향”, 경영논집, 제주대학교, 1997
- 허향진. 최병길. 오상훈, “제주도민의 관광의식 조사 연구”,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1997.

3) 기타

서귀포시, 관광개발 업무편람, 2001.

서귀포시, 시정백서, 2001.

서귀포시, 주요행정총람, 2002.

송재호, 특화시대 태생적 비교우위의 위기 · 제주다운 제주의 개발 구상,
한라칼럼 4면, 2002. 3. 28.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 제주국제자유도시 소책자, 2001.

제주도, 도정백서, 2001

제주도관광협회, 내국인 및 외국인(중국 · 일본)의 제주관광실태조사, 2001.

제주일보,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관련 기사 3면, 1982. 8. 9.

제주타임스, 제주월드컵 방문관련 보도자료 일부 발췌, 2002. 4. 12.

한국관광공사, 관광지주민의 관광의식조사, 1999.



2. 國外文獻

- Altman, John, 'Tourism Dilemmas for Aboriginal Australian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89.
- Brain G. Boniface and Christopher P. Cooper, 'The Geography of Travel and Tourism', Oxford : Heinemann Professional Publishing, Ltd, 1988.
- Douglas Pearce, 'Tourism Today, Longman Scientific & Technical', 1987.
- Doxey, G, V, 'A Casuation Theory of Visitor-Resident Irritations Methodology and Research Inferences', Proceedinings of the 6th Annual Conference of the Travel Research Association, 1976.
- Kadt, 'Estimating Economic Impacts of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89.
- Lankford, Samuel V., and Denis R. Howard, 'Developing a Tourism Impacts Attitude Scale',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94.
- Mathieson, Alister and wall, Geoffrey, Tourism : Economic, Physical and Social Impacts. New York : Longman, 1982.
- Pearce, II, John A., 'Host Community Acceptance of Foreign Tourist : Strategic Consideration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80.
- Pearce, Douglas G, 'Tourist Development. New York : Longman, 1981.
- Pearce, Douglas G, 'Tourism and Regional Development : A. Genetic Approach':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82.
- Smith, S. Recreation Geography, Longman, London, 1978.
- WTO, Risk of Saturation or Tourist Carrying over road in Holiday Destinations, 1983.

<說問紙>

“觀光地 住民의 觀光影響 認識에 關한 研究”
설문조사표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광지 주민의 관광영향 인식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관광경영학과에 재학중
인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천혜의 관광지인 서귀포지역 관광지 주민을 대상으로
관광영향 인식 전반에 대한 의견을 조사·분석함으로써 관광기획 및
개발정책 등 관광행정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본 연구의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
될 것이며, 연구의 귀중한 학술적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며 도움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2002년 9월 일

—指導教授—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관광경영학과
허향진 교수

— 調査者 —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석사과정
송양우 드림
(H·P 011-697-3189)

▶ 다음 항목에 대하여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해당번호에 V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관광지 주민의 관광영향 인식에 관한 설문입니다.

번호	설문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생활수준 향상 지역관광으로 인하여 나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	고용기회 확대 지역관광으로 인하여 관광관련업체의 고용기회가 확대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	주민 소비증가 관광객의 소비성향 영향으로 지역주민의 소비가 증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도로확충·개선 지역관광으로 인하여 도로개설 및 정비가 잘 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관광개발로 인한 부작용 관광개발로 인하여 주위경관이나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등 부작용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지역경제 발전 촉진 관광개발은 지역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지역발전을 촉진시켰다.	①	②	③	④	⑤
7	관광객의 사고방식 이해 관광객과의 접촉을 통해 관광객들의 사고방식이나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	①	②	③	④	⑤
8	여가기회 증대 관광관련 오락·축제 등 각종 이벤트 증가로 여가활동 기회가 증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9	풍기문란 등 범죄 유발 관광관련 행사산업의 번창으로 풍기문란 등 범죄를 유발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전통 미풍양속 저해 관광객의 증가는 지역의 전통 미풍양속에 해를 끼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교육문제 발생 지역관광으로 인하여 청소년 비행 등 교육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관광객과의 접촉 다양한 문화를 배우기 위하여 많은 지역의 관광객과 만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설문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13	지방문화 발전 촉진 지역관광은 음악, 문학 기타 각종 예술활동을 통해 다양성을 촉진시키며, 지방문화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문화적 유산 손상 관광객의 증가로 문화적 유산 등 손상을 입히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 관광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공원, 시설들이 갖추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쓰레기 등 오염물 발생 관광은 우리 지역의 쓰레기 등 오염물 발생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소음 및 교통체증 발생 지역관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및 교통체증 때문에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II. 관광개발 인식에 관한 항목입니다.

번호	설문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18	추가적인 관광개발 찬성 지역발전을 위해 추가적인 관광개발에 찬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환경보호 우선순위 관광객유입보다 환경보호 및 기타문제에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뒤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지방세 부담 찬성 우리지역 관광개발을 위한 지방세 부담을 찬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관광의 부정적 요소 최소화 관광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관광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Ⅲ. 인구 통계학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번호	설문내용	①	②	③	④	⑤
1	성별	남	여			
2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3	학력	중졸이하	고졸	대재~대졸	대학원 재학이상	
4	직업	농업/어업	자영업	공무원	회사원	기 타
5	거주기간	10년미만	20년미만	20년~30년 미만	30년이상	
6	거주지역 (행정동별)	구시가지권 (계주동)	신시가지권 (교동)	중문권 (도서동)		
7	월수입	100만원 미만	100~200 만원미만	200~300만 원미만	300만원 이상	
8	직업과 관광과의 관련 여부	관련 있다	관련 없다			
9	평소 관광객과의 접촉 정도	많은 편 (수시)	보통 (하루 한번정도)	적은 편 (2-3일에 한번정도)	거의 없다	

☞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BSTRACT

A Study on the Residents' perceptions of tourism impacts — A case of Seogwipo city

Advised by Huh, Hyang-Jin

Submitted by Song, Yang-Woo
Department of Tourism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eogwipo city residents' perception of tourism impacts.

The impacts of tourism resulted from the interactions between tourist and residents in destination place community.

Introduction part of this thesis set up problem suggestion, research purpose, research boundary, and research method.

In second chapter through the review of literature, set up the theoretical backgrounds.

Third chapter is positive research. This chapter set up the design of research model, establishment of research hypothesis and investigation design.

Fourth chapter is analysis result and interpretation.

So, this study is to come out some differences of perception of residents' perception about tourism impacts from SPSS package program.

From the data analysis, the Seogwipo city residents' overall perception of tourism impacts are positive, also, in answer about hereafter tourism development, positive answer is dominant.

感謝의 말씀

흘러가는 세월이 안타까워 뭔가 해야겠다는 의무감에서 시작한 대학원생활이 마감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본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허향진 교수님과,
따뜻한 사랑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신 김경호 교수님, 최병길 교수님,
오상훈 교수님, 조문수 교수님, 그리고 강의 및 심사를 하여 주신
모든 교수님의 노고에 깊이 존경을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을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강상주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및 지인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준 사랑하는 아내 강미옥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아들 영현, 정환이에게 “ 화이팅 ” 을 보내면서
精進을 다짐해 봅니다.

끝으로 늘 관심과 믿음으로 지켜봐주신 어머님과 장인, 장모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